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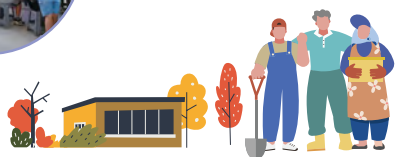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509-14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우상 사례집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농촌



CONTENTS

마을만들기 분야

01 소득·체험

금상	강원도 인제군 산촌마을	008
은상	전라남도 함평군 주포마을	014
동상	경기도 용인시 장촌마을	020
입선	전라북도 부안군 양지마을	026
입선	경상북도 울진군 전곡리마을	032

02 문화·복지

금상	강원도 영월군 삼돌이마을	040
은상	경상남도 사천시 장전2리마을	046
동상	충청남도 당진시 산성리마을	052
입선	경상북도 칠곡군 송오2리마을	058
입선	경기도 가평시 초롱이동지마을	064

03 경관·환경

금상	경상남도 거창군 갈지마을	072
은상	전라북도 순창군 덕흥마을	078
동상	충청남도 서천군 마양마을	084
입선	강원도 평창군 약초마을	094
입선	제주도 서귀포시 오조리마을	100

농촌만들기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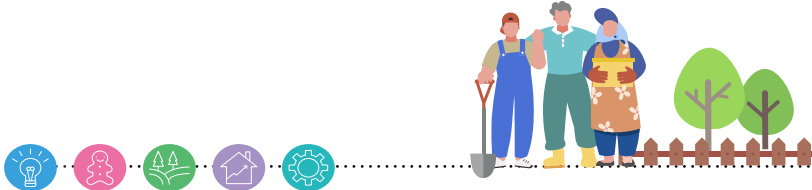
04 농촌지역개발사업

금상	경남 김해시 진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04
은상	충북 제천시 수산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110
동상	충남 청양군 남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16
입선	세종시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22
입선	경북 청송군 현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28

05 농촌 빈집·유휴시설 활용

금상	충북 청주시 미원면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	136
은상	전남 해남군 북일면 빈집활용	142
동상	전북 부안군 우덕기록문화관	148
입선	전북 완주군 그림책공감	154
입선	경북 김천시 김천시니어클럽 청노을식품	160

본선 행사 사진	166
----------	-----



성공적인 농촌마을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롤모델이 되기를..

총괄 심사위원장 최 수 명(전남대 명예교수)

9도를 맞고 있는 행복농촌 콘테스트는 그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전적으로 결합되어, 과정과 성과가 내실화 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회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주민참여,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상호보완적 협력에 의한 혁신적 사고 및 사업추진,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마을과 마을 방문객 까지도 인력자원화 하는 총체적인 인적개발 노력이 돋보입니다. 이는 유럽연합과 OECD 등, 글로벌 농촌개발 추세의 지향점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공간은 도시의 부속물이거나 변방이 아닙니다. 고밀도 도시공간과 상생하는 특유의 저밀도 공간입니다. 일방적으로 시혜받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존립을 위해, 서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농촌의 문화와 복지, 경관과 환경은 이러한 관점에서 일상화 되어야 합니다. 할머니들의 시 쓰기, 고령화를 문화동력으로 바꾸는 '회춘 유랑단' 활동, 구성원 간의 새로운 관계 맺기 등에 의해 마을공동체는 더욱 견실해지리라 기대합니다.



중심지에 대한 배후마을의 충성도 회복이 중요합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까지 배후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학부모의 사업 참여, 학교 등과의 프로그램 연계에 의한 사업운영 내실화, 지역 테마를 중심으로 한 일관적 사업운영 등은 참신한 시도입니다. 유희시설을 이용한 마을기록물 보존, 빈집을 이용하여 마을학교는 물론이고 마을을 살리는 아이디어도 돋보입니다.

콘테스트에서 마을주민 여러분들이 보여 주신 공동체적 노력과 성과는 각각의 마을발전 유형에서 모델입니다.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농촌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사례집

마을만들기 분야



이 소득·체험

행복한 농촌에 소득은 필수입니다.

소득과 체험이 함께하는

우리 농촌마을을 소개합니다.

금상 | 강원도 인제군 산촌마을 08

은상 | 전라남도 함평군 주포마을 14

동상 | 경기도 용인시 장촌마을 20

입선 | 전라북도 부안군 양지마을 26

입선 | 경상북도 울진군 전곡리마을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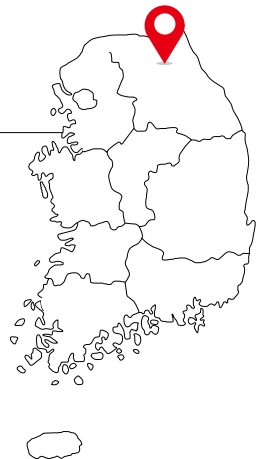
소득·체험
금상

남다른 시도로 한발 앞서가는 강원 인제군 산촌마을

설악산 아래의 소양강 상류에 자리한 하추리산촌마을은 강원도의 산촌 풍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입니다. 옛 화전에서 시작한 잡곡 농사를 기반으로 트렌드에 따라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기획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촌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위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로 187
인구수(가구)	150명(120가구)
마을자원	가리산천 하추리계곡, 한석산, 잡곡, 도리깨축제



산촌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마을전경

하추리마을은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나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계곡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가리산천 하추리계곡이 있고, 풍요로운 계절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흥겨운 문화예술무대 도리깨축제가 열립니다. 고지에 위치한 하추리마을은 산채약초와 각종 버섯, 고랭지 채소 등 맛이 좋고 품질을 인정받는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모두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 '하추리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마을에서는 번지점프와 플라이 낚시, 숲 트래킹, 혼자 하는 산촌여행 등 자연경관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통해 마을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추리마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은 많은 주민들에게 자연과 함

께 마을 가꾸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귀촌인과 젊은 청년들이 힘을 더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금의 하추리마을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던 마을에 꼭 필요한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그에 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추리산촌마을이 위치한 한계령의 한계는 땅의 경계를 뜻하거나 팀 또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힘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寒溪, 차가운 시내라는 뜻입니다.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맑은 물줄기처럼 힘 있게 성장하고 있는 하추리마을은 늘 새로운 시도를 하며 주민들이 꿈꾸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마을주민



▲ 도리깨축제



▲ 슈트래킹

상품에 대한 연구와 시도하는 용기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농촌체험과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농산물 이 아니라 하추리산촌마을만의 특색을 담아낸 체험과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최신 트렌드를 읽고 그것을 반영하여 상품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개발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마을의 자랑 중 하나가 상품 개발 과정을 외부 인력에 기대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리더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노력하여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마을공동체이면서 기업처럼 운영하는 소득사업

하추리산촌마을의 마을기업 '하추리영농조합법인'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마을공동체이지만 지속가능한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고, 상품에 있어서는 가치를 더하는 개발이라는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브랜딩을 통해 마을공동체이면서도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늘 열려있는 마을

마을 발전을 위해서라면 하추리산촌마을의 주민들은 누구에게나 마을의 울타리를 열어줍니다. 마을로 귀촌한 새로운 주민은 물론이고, 인접한 이웃 마을의 일손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저희 마을에서 해결하는 힘든 부분을 채워줄 외부의 전문 인력도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일자리를 경험하기 위해 찾아온 도시의 젊은 청년들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열린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을입니다.

“
새로운 내일을 위해
마을의 어제와 오늘을
공부합니다.
”



▲ 특산물판매장



▲ 가마솥밥짓기 체험



▲ 혼자하는 산촌여행



TALK TALK

미니인터뷰



마을대표
윤종욱

마을의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윤종욱 (마을대표)

하추리산촌마을의 소득사업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증대입니다. 이를 위해 꾸준히 방문객과 매출액을 늘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트렌드를 읽고 이에 맞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식품인 잡곡을 브랜딩하고, 소포장 등으로 상품을 다양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시즌 새로운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 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늘려 갈 것입니다.

마을의 최종목표는 무엇인가요?

윤종욱 (마을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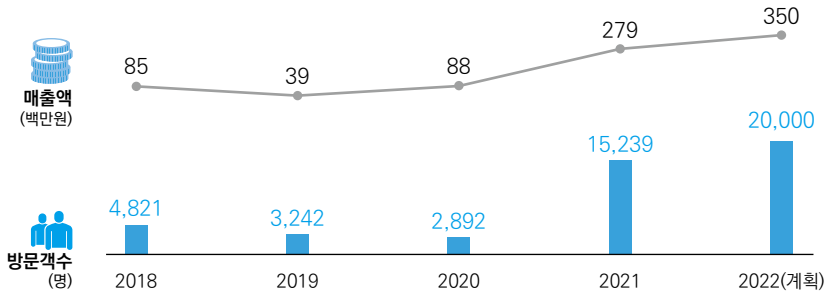
우리 마을의 목표는 미래가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는 것입니다. 2006년에 처음 마을 사업을 시작했으니 벌써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여러 힘든 일을 겪기도 했지만 마을이 발전해가는 과정을 모든 주민이 같이 경험하면서 각자의 역량을 키웠고, 단합 또한 잘 되게 되어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더욱 노력하여 청년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도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이웃과 함께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더불어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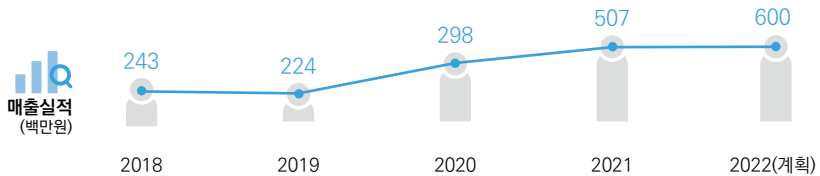


마을사업성과

체험소득 및 방문객



총 소득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06~08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비 : 500백만원
주관기관 : 강원도청
주민교육, 소득사업개발

2010~11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비 : 100백만원
주관기관 : 농어촌공사
체험마을 기반조성,
프로그램 개발

2014~15

잡곡기술력 향상프로젝트

사업비 : 500백만원
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도정공장 신축,
잡곡 상품화 개발

2019~21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마을형

사업비 : 600백만원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문화자원 활용 연구,
문화기반시설 조성





저녁노을이 머무는 석양마을 전남 함평군 주포마을

저녁노을이 머무는 석양마을, 주포마을은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인 함평만이 펼쳐져 있습니다. 눈부신 바다와 천혜의 갯벌, 황홀한 노을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보유한 마을입니다.

'주포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주포로 403-6(석성1리)
- 인구수(가구) 207명(134가구)
- 마을자원 다목적 센터(펜션·북카페·교육장),
캠핑장, 핑크물리 역사밸리존,
주포한옥전원마을,
주포 해수찜, 돌머리해수욕장 등



주포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익새벌리촌 전경

주포마을은 지역특성을 살린 한옥전원마을과 핑크몰리·국화 등으로 꾸민 익새 정원, 백사장과 숲쇼이 우거진 돌머리해수욕장 등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원들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2012년에 주포마을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의 장점을 살려서 주민이 떠나가는 농촌이 아닌 주민으로 살기 위해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주포마을 주민들이 직접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업의 주체가 되었던 주포권역 종합정비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층 규모의 다목적 센터를 건립해 숙박시설과 북 카페를 조성하였고, 교육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야외에는 캠핑장 및 족구장, 물놀이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및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통해 운영 첫 해부터 흑자 달성에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총 50동의 한

옥 중 30동을 한옥 민박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포 한옥전원마을과 주포 해수찜(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힐링과 휴양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코로나 시국임에도 소득사업의 매출액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수익 나눔에 기여합니다. 매년 국악·재즈·버스킹 등 문화공연 행사를 개최하고, 헬러윈 이벤트와 주포 포토왕 이벤트 등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재방문객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녁노을이 머무는 석양마을인 주포마을은 나눔과 공존을 마을의 가치로 잡아 사람들과 나누는 정, 주민의 행복을 제1순위로 생각하는 마을입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행복한 농촌마을이 되고자 항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주포 한옥전원마을 전경



▲ 익새벌리촌 전경



▲ 그림책마을 활동가 양성 수업

마을의 지리적·경관적 이점 활용에 집중한 사업

주포마을에는 광주광역시와 가장 가까운 바다인 함평만이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 지리적 여건과 노을, 소나무 숲, 핑크몰리 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완벽한 체류시설이 되기 위해 캠핑장과 펜션, 북 카페, 물놀이장, 세미나실 등의 편의시설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또한 체류시설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내 부족한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젊은 관광객을 타깃으로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적극 수용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젊은 층은 일과 휴식의 균형을 추구하며, 주말엔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와 활력을 누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비교적 안전한 실외활동인 캠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주포마을은 이러한 여행 동향에 맞춰 마을의 자원과 자연경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색다른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SNS(인스타그램)와 홈페이지에 소식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민 중심의 사업추진체계로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2016년 석양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주포마을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월 1회 마을운영진 이사회, 연 1회 마을 총회를 진행하며 주민 모두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 처리는 물론 민주적인 토론과 함께 학습 분위기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또 오고 싶은 마을
”



▲ 가을힐링콘서트_버스킹



▲ 주포캠핑장 전경



▲ 주포 협동조합 회의



TALK TALK

미니인터뷰



마을 위원장
박내오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한 특별한 의미나 계기가 있나요?

박내오 (마을 위원장)

주포마을의 성과와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지금의 마을 성장을 이루어 내게 되었다는 점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먼저 변화하여야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포마을에 사는 우리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주포마을을 찾아주는 방문객 눈높이에 맞추어 변화해나가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노력,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방문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마을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포마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도우화분·풍경 등의 만들기 체험과 연날리기 활동 등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점도 마을의 자랑거리입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지숙 (사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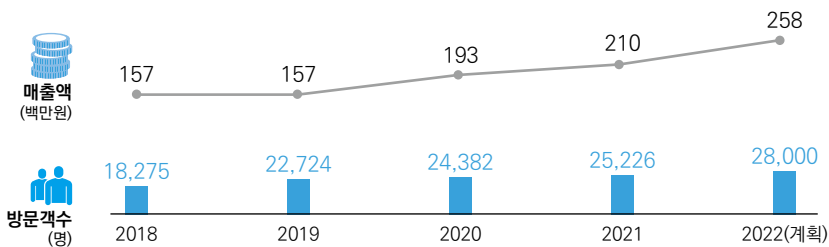
체험휴양마을 지정과 함께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체험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적극적인 SNS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주포마을의 성장으로 이루어낸 수익금을 지역발전에 환원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 기금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역 내 20개 마을의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을 제공하고 주포마을만의 실버연금과 장학금 제도, 지역주민들의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이벤트 행사 모임을 만들 예정입니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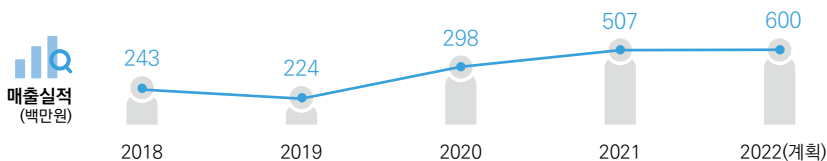


마을사업성과

총 소득 및 방문객



순이익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12~16

주포권역 종합정비사업

사업비 : 5,478백만원
 주관기관 : 농림부
 다목적센터, 경관가로수길 조성 등

2011~13

주포 한옥전원마을 조성사업

사업비 : 7,100백만원
 주관기관 : 농림부
 한옥전원마을(50동)조성

2017~19

주포 역사밸리존 조성

사업비 : 240백만원
 주관기관 : 함평군
 역사, 수크령, 국화 등 식재
 이색정원 및 산책로 조성

2017.4~11

도시와 함께하는 대추 팸파티

사업비 : 40백만원
 주관기관 : 함평군
 대추팸파티 품평회, 전시
 판매 등 빈자리 음악회

2021.10

시군역량강화사업

사업비 : 5백만원
 주관기관 : 농림부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기획·운영지원

2021~2023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비 : 18백만원
 주관기관 : 전라남도
 경관개선 및 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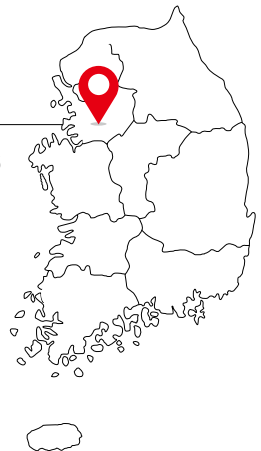


생동감으로 넘치는 행복공동체 경기 용인시 장촌마을

산으로 둘러싸인 장촌마을은 뛰어난 산촌경관으로 용인 속의 강원도라고 불리는 마을입니다. 마을의 복합문화 공간인 마을카페(MOOK3)을 운영하며 계절별 농산물체험과 산림을 이용한 힐링·체험활동이 있습니다.

'장촌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601번길 36
- 인구수(가구) 264명(125가구)
- 마을자원 마을카페 겸 마을회관(MOOK3), 실내체험장, 김장 절임 시설, 농사체험장, 농촌즐기기 체험장(물고기, 활쏘기, 생태관찰, 보물찾기, 낚 놀기 체험 등)



장촌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용인 속의 강원산골 장촌마을

장촌마을은 마을 경관으로 심은 토종복숭아 3,000여 주로 복사꽃 축제를 개최합니다. 수확된 복숭아는 청과 음료로 만들어져 마을카페에서 인기 음료(수양홍도차)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을카페(MOOK3)는 언덕 위에 있던 작은 마을회관을 팔고, 마을 중심에 있어 늘 민원으로 시끌벅적했던 공장을 사들인 후 다목적 마을회관으로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마을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마을카페의 역할과 마을회관·회의장·실내 체험장 등 장촌마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행안부 마을기업 공모사업으로 마을기업이 되었으며, 2021년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을소득은 마을카페의 식음료 체험 판매, 공간대여를 더불어 계절별 농산물체험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외 농촌마을 즐기기 체험으로 물고기 잡기·표고버섯 종균 넣기·활쏘기·생태관찰·보물찾

기·멍 때리기 등이 있습니다. 실내 체험으로는 해시리떡·효소숙성고추장 만들기가 있습니다. 2018년 주민소득사업법인인 영농조합법인 장촌마을을 설립한 후 기존에 0명이었던 마을 방문객이 연간 2,000명으로 훌쩍 성장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한번 오면 또 오고 싶고 또 오면 살고 싶은 장촌마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대다수인 장촌마을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어르신의 점심 공동식사를 실천하고 있고, 중장기 계획으로 마을요양원 만들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무사히 이루어 살아온 곳에서 아름다운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마을이 되고자 합니다.



▲ 홍물 공장이 마을 자랑 카페 MOOK3 으로



▲ 농촌마을 즐기기 버섯 체험 프로그램



▲ 봄에 열리는 복사꽃 축제

주민 참여로 완성한 마을기업

장촌마을은 산촌형 농촌마을로 고령화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마을기업인 영농조합법인 장촌마을을 설립하였습니다. 최초 마을법인 조합원 36명으로 시작한 마을 수익사업은 주민 모두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출자금은 10만원으로 하여 조합원 가입 문턱을 낮추었으며 그 결과 지금은 조합원이 5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자립형 생활 복지공동체를 꿈꾸며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 입니다.

법인 정관과 규약을 통한 공정한 수익배분

우리 마을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함께 사는 주민을 못 알아볼 정도로 양 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속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마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법인으로 하여 마을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이 생겼을 때 함께한 분들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인 사업에 참여한 만큼의 근로 배당과 출자한 만큼의 배당을 해줌으로써 불공정으로 인한 분란의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주민의 재능을 활용한 동아리 활동 및 체험소득

장촌마을에는 재능 있는 주민들이 많아 교육·동아리 분과를 조직하였습니다. 마을카페에 모여 함께 배우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운동하고 공연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마을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마을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에는 주민과 동아리 등이 참여하는 장촌마을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한 동아리와 분과에서 각종 체험과 소득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
한번 오면
또 오고 싶은
힐링 마을
”



▲ 92세 노인회장님과 함께 일하는 마을 공동농장



▲ MOOK3 마을카페에서 마을 어르신 공동식사



▲ 음식 개발 및 연구 동아리 토피바퀴



TALK TALK

미니인터뷰



마을대표
박상석

마을의 대표적인 소득·체험은 무엇인가요?

한유현 (농산물분과 분과장)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촌 경관을 활용한 여러 실내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장촌 마을은 소득·체험 종류가 다양하네요. 우선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재료로 만든 차와 음료를 마을카페(MOOK3)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종복숭아로 만든 '수양홍도차'와 '사라다방', '산채나물 한상차림' 등의 메뉴가 인기입니다. 또한 조합에서 재배한 공동농장(농사 체험장)에서 계절별 농산물 재배 및 수확 체험 등을 기본으로 청정계곡을 활용한 물고기 잡기 체험과 숲을 이용한 표고버섯 따기, 활쏘기 체험 등의 농촌 즐기 체험이 대표적입니다.

앞으로 마을의 발전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필순 (교육동아리 분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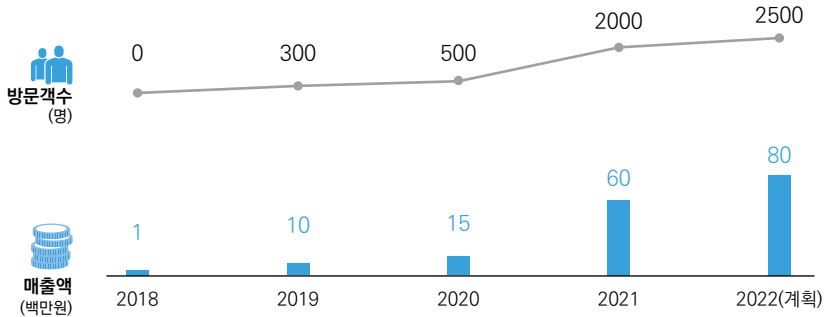
우리 마을은 5년 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며 즐거운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마을과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역량 있는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에서 재능을 펼치고, 더 많은 주민까지 함께하는 동아리로 발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개발과 체험 프로그램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우리 마을이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되고, 한번 오면 또 오고 싶고 또 오면 살고 싶어지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50%가 참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도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하도록 노력하여 자립형 생활·복지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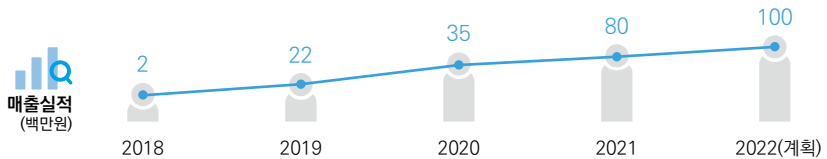


마을사업성과

체험소득 및 방문객



총 소득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19.1.~12.

마을기업

사업비 : 50백만원
주관기관 : 행안부
배추절임시설

2019~21

**농촌마을
공동농장조성시범사업**

사업비 : 250백만원
주관기관 : 용인시
마을회관 다목적실 리모델링

2021

마을기업 재지정

사업비 : 30백만원
주관기관 : 행안부
농촌체험장조성

2021

체험휴양마을지정

사업비 : -
주관기관 : 용인시



소득·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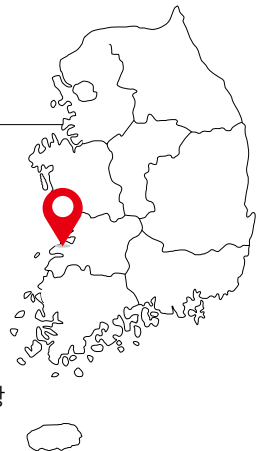
★ 입선 ★

누룽지처럼 구수한 마음을 품은 전북 부안군 양지마을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갯벌이 사라진 양지마을은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마을 사업을 꾸렸습니다. 계화미를 이용한 '바로 도정한 현미 수제 누룽지'는 양지마을의 자랑스러운 자랑이자 마을주민의 소중한 일자리가 되었습니다.

● '양지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양지길 11-3
- 인구수(가구) 45명(32가구)
- 마을자원 동진감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간재선생(조선 후기 성리학자), 간재선생유지(전라북도기념물 제23호), 봉화제, 풍어제 계화산탐방로, 계화봉수대, 양지항



양지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누룽지 홍보

계화면은 원래 계화도라는 섬이었으나 1960년대 간척사업으로 부안군과 연결되면서 육지가 되었습니다. 1983년에 계화면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한 때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간척지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내륙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사라진 갯벌로 인하여 젊은 주민이 모두 떠나고 초고령 노인마을이 된 양지마을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양지마을을 살리고 양지마을에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논의 끝에 지역자원인 계화미를 이용하여 현미 누룽지 상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수한 누룽지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일구었고, 마을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양지마을은 역사·문화 자원도 풍부한 마을입니다. 전라북도기념물 제23호에 등재되어 있는 간

재선생유지는 자연석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인 키오스크도 설치되어 있어 관광객들은 간재선생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사계절 중 가을을 유난히 아름답게 보여주는 계화산 탐방로도 힐링을 주는 코스입니다. 계화산은 누구나 가볍게 오를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정상에 올라 주변 풍경을 보며 감동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지마을의 누룽지를 먹으며 가을을 즐기기에 제격인 곳입니다. 이외에도 계화면에는 풍어제와 봉수제 등 다양한 경관 및 역사자원이 있어 먹거리·놀거리·즐길거리가 풍부한 마을입니다.



▲ 주민사진



▲ 나락 바로도정



▲ 누룽지 작업

마을 공동체를 +더하기

섬으로 시작해 육지가 되어 마을사업의 변화까지 겪었던 계화면 주민들은 모두가 마을의 일원이라는 책임감으로 뚝뚝 뭉쳐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같은 자리를 지키며 한마음 한뜻으로 마을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을 활용하여 삶을 이어나갑니다. 마을 공동체를 통해 더욱 합심하여 즐거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마음을 ÷나누기

마을주민의 마을 살리기에 대한 희망과 염원으로 출발한 새로운 마을사업, 현미 누룽지는 계화 간척지쌀 100%로 만들어 건강해도 좋고, 직장인들에게도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고령화된 마을 주민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더불어 마을소득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계획미로 생산하는 누룽지를 지역에 나누고 베풀어 우리가 체험한 공동체의 의미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희망과 협력을 ×곱하기

정겹고 소박한 풍경을 가진 양지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작은 것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을입구의 조롱박터널을 지나면서부터 구수한 향과 함께 현재 마을의 가장 주요 사업인 '바로 도정 현미 수제 누룽지'가 쓰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누룽지 만들기는 단순하고 소소한 일거리지만 주민들이 여러 과정을 직접 손으로 수행하기에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예부터 한국인의 힘이었던 쌀을 통해 마을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주민들이 화합하여 활기가 넘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
작은 마을이지만
강인한 주민들과
따뜻한 정이 있어요
”



▲ 두릅축제 및 작은음악회



▲ 지역나눔(기부)



▲ 마을입구 조롱박터널



TALK TALK

미니인터뷰



마을주민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한 특별한 의미나 계기가 있나요?

최생수(양지마을 위원장)

우리 양지마을은 긴 세월동안 여러 변화를 맞으며 내부가 더 단단해진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방도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19까지 맞게 되어 경기침체를 겪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누룽지 소득이 줄어들어 마을 주민들의 자신감이 하락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다시 한 번 협동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원래 모습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이번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참여를 통해 다함께 이야기 나누고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을을 대표해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삼차 (양지마을 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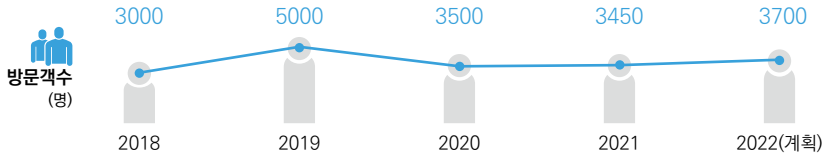
양지마을은 누룽지라는 소소한 소득창출을 하고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주민들 간의 화합과 유대감은 어느 큰 마을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지마을은 정이 넘치고 인심 좋은 마을로 방문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족, 내 손자처럼 생각하여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저희 마을의 자랑인 현미 누룽지라도 하나 손에 꼭 쥐어줍니다. 편히 쉬었다 갈 수 있고, 농촌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마을입니다. 이번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우리 마을 주민들이 협동하여 준비한 것들을 무사히 선보이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고, 더불어 마을을 홍보하여 많은 분들께 응원을 받고 싶습니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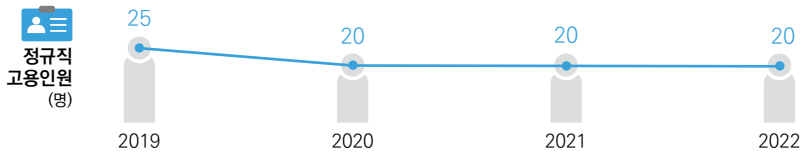


마을사업성과

방문객



일자리 창출 수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16. 8.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소액사업

사업비 : 5백만원
주관기관 : 부안군
계화산 개복숭아 조성,
개복숭아 열매 효소 제조

2017. 4. ~ 11.

현장포럼 진행

사업비 : 3백만원
주관기관 : 부안군
마을공동체 교육 진행

2018. 5.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소액사업

사업비 : 5백만원
주관기관 : 부안군
마을입구 조롱박 터널조성

2019. 11.

마을자원조사

사업비 : 2백만원
주관기관 : 부안군
어메니티 자원 조사를 통하여
공동체 사업 발굴

2020. 9.

지역나눔

사업비 : 10백만원
주관기관 : 양지마을
면사무소 복지민원팀
40만원(누르지) 기부

2021. 11.

시군역량강화
발전계획수립

사업비 : 10백만원
주관기관 : 농림부
택배 박스 지원(1,000매)

2021. 10.

박람회 참가

사업비 : 15백만원
주관기관 : 농림부
대한민국 명품 페스티벌,
전북 노인생산물 랜선박람회





소득·체험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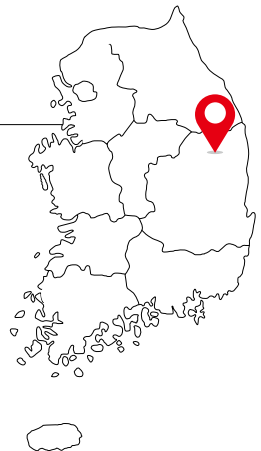
달보기마을로 놀러오세요

경북 울진 전곡리마을

금강송면 서단 금강송권역(쌍전1·2리, 소광1·2리, 전곡리)에 위치한 전곡리마을은 화전민들의 정착으로 시작된 마을입니다. 예로부터 한해 농사를 예견하기 위해 달을 보러 오는 마을입니다.

'전곡리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2길 275-12)
- 인구수(가구) 61명(40가구)
- 마을자원 두릅, 고사리, 서리태, 조, 수수 등 농산물,
화전민촌민박 2채(희락당, 만월당),
골포천휴양관(금강송1, 금강송2),
마을유물전시관 및 카페



전곡리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마을전경

전곡리마을은 1656년(효종7년)에 좌승지 방덕영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된 곳입니다. 1916년 3월 1일 전천동·원곡동·승부동이 통합되어 전곡리로 개편된 이후 1993년 12월 5일 봉화군 석포면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예로부터 한해 농사를 예견하기 위해 달을 보러 오는 마을이기도 했는데요. 정월대보름달이 뜨는 봉우리의 위치에 따라 떡봉·밤봉·죽봉으로 불립니다. 다양한 자원을 가진 전곡리마을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역', '국내 최초의 민자 역사'로 불리는 역도 있습니다. 전곡리와 분천리 경계에 위치한 철도 임시승강장인 양원역입니다. 또한 금강소나무 숲길 제2구간(한나무재길) 출발점이기도 한 전곡리마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수령 약 250년에 달하는 천연기념물 408호로 지정된 쌍전리 산돌배나무입니다. 제2구간은 옛날 보부상들이 내륙지

방으로 소금이나 미역, 어물 등을 짚어지고 넘나들었던 12령(열두 고개) 중 두 고개가 있는 탐방로로서 편도 9.6km길이로 4시간이 소요됩니다. 전곡리마을은 두릅의 품질이 타 지역보다 우수합니다. 허나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2022년 4월, '전곡리 두릅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곡리의 우수한 두릅을 알리는 것은 물론 주민의 화합을 꾀할 수 있었고, 마을홍보와 일자리 창출, 마을소득 증대 등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골포천 휴양관' 및 마을민박 시설, 카페 운영으로 마을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에서 멥때리기', '할머니의 부엌체험' 등 신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 숲에서 멥때리기 체험



▲ 두릅축제 두릅전 만들기



▲ 마을유물전시관

주민 화합의 장이자 마을소득원인 두릅축제

타 지역보다 품질이 우수한 전곡리의 두릅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한 '전곡리마을 두릅축제'가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작은 음악회도 함께 진행되어 음악이 있는 축제로 많은 분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두릅전 만들기 체험도 있어 혀도 즐거운 이 축제는 주민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전곡리마을 홍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자연스레 창출되었고 축제 수익금을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두릅축제

역사와 자연경관을 이용한 마을 사업

화전민들의 정착으로 시작된 전곡리 마을은 화전민 가옥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화전민촌 민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만날 수 있는 화전민촌의 설경은 소박하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골포천 휴양관과 보호수가 있는 마을카페 등을 운영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을 위한 돌레길 트레킹 등의 체험프로그램으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마을카페와 보호수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와 신선한 프로그램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역인 양원역을 거쳐서 가는 협곡열차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강소나무 숲길 2구간을 이용하는 트레킹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전곡리마을의 홍보가 활성화 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전곡리마을은 증가하는 방문객들에게 더 다채로운 추억을 드리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숲에서 이루어지는 '숲에서 멍때리기' 체험은 바쁜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 양원역과 협곡열차

“

역사와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체험과 휴식이 있는 마을

”



TALK TALK

미니인터뷰



마을이장
김달덕

마을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김달덕 (마을이장)

전곡리마을은 마을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하고 추진 중이지만 무엇보다 주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전곡리에 사는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마을이 되면 한 번의 방문으로 그치려고 했던 방문객들도 다시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새로운 먹거리와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연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더 다채로운 체험거리를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추억을 줄 수 있는 마을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이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전곡리마을은 기본적으로 마을 민박에서 많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소득원의 증가를 위해서 마을의 공동두릅농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을의 특산품이기도 한 두릅을 활용하여 소득과 체험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마을 소득을 올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농장으로 주민들은 더욱 결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5년 후 마을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김영자 (부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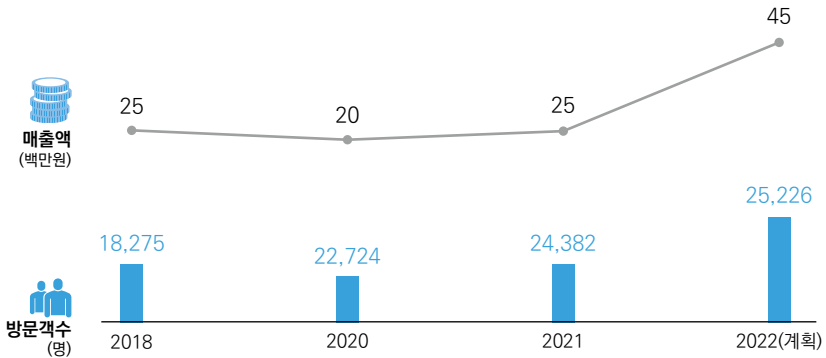
5년 후의 전곡리마을을 그려보면 귀농·귀촌인이 증가해서 주민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마을은 참 살기가 좋거든요. 멋진 나무들도 많고요. 천연기념물인 산돌배나무도 그렇지만 마을카페 옆에 있는 보호수도 참 그림같이 생겼어요.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열심히 개발 중이기에 소득금액도 지금의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해요. 무엇보다 이러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우리 마을이 보다 더 단합되고 화목하게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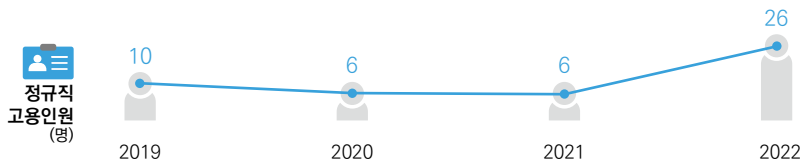
mini interview

마을사업성과

체험소득 및 방문객



일자리 창출 수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15~18	2018~21	2021	2022.4.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산림치유 휴양마을만들기 사업	국가농업유산지속사업	두릅축제
사업비 : 500백만원 주관기관 : 농식품부 마을민박(트레킹)	사업비 : 1,000백만원 주관기관 : 산림청 골포천 휴양관 펜션	사업비 : 200백만원 주관기관 : 울진군 마을카페	사업비 : 23백만원 주관기관 : 전곡리 자체 마을단위축제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사례집

마을만들기 분야



02

문화·복지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한 주민복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우리 농촌마을을 소개합니다.

금상 강원도 영월군 삼돌이마을	40
은상 경상남도 사천시 장전2리마을	46
동상 충청남도 당진시 산성리마을	52
입선 경상북도 칠곡군 송오2리마을	58
입선 경기도 가평시 초롱이등지마을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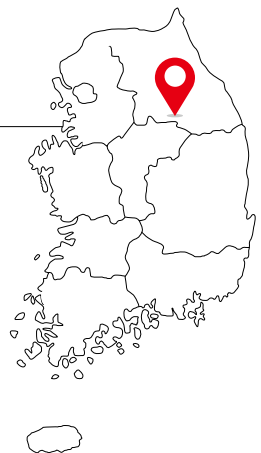
문화·복지
금상

박힌 돌, 굴러온 돌, 굴러올 돌 삼돌이가 행복한 강원도 영월군 삼돌이마을

강원도 영월군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삼돌이 마을은 10년 전만 해도 “칠삭등이가 이장을 해도 외지인은 절대 안 된다”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랬던 마을이 최근 귀농귀촌으로 인구가 두 배가량 늘었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함께하는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삼돌이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덕은골길 6
- 인구수(가구) 221명(126가구)
- 마을자원 삼돌이학교(구, 운학분교), 삼돌이카페,
 귀농귀촌인의 집(3동), 산골스테이(8동)



삼돌이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삼돌이마을 전경

마을 이름 삼돌이는 원주민을 뜻하는 박힌 돌, 굴러 온 돌을 뜻하는 귀농귀촌인, 굴러올 돌을 뜻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말합니다. 각자의 환경과 생각 차이 등을 서로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일상 속 문화 활동과 주민 복지를 통해 주민 누구의 소외됨 없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마을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새 농촌 건설 운동 등을 통해 문화·복지 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한 '삼돌이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동아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부녀회원들이 운영하고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는 '삼돌리카페'와 '산골스테이' 공간 등은 주민 소통과 복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집'은 귀농귀촌 가족들의 농촌 정

착을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삼돌이마을에서는 풍물, 뜨개질, 목공, 댄스 등 7개의 동아리 활동이 일주일 내내 열립니다. 그 외에도 생활문화공동체 활동으로 '어르신 인생그림책', '삼돌이생각', '삼돌이달력' 등으로 주민과 마을의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온마을학교'라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과 돌봄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농촌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여러 문화·복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한 귀농귀촌체험학교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도 귀농·귀촌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을의 목표입니다.



▲ 삼돌이학교 전경



▲ 삼돌리카페



▲ 벽화작업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삼돌이 관계 맺기

저마다 다른 삶의 방식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지은 '삼돌이'(박힌 돌, 굴러온 돌, 굴러올 돌)이라는 이름처럼 삼돌이마을은 전 주민이 연결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취향이 담긴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은 물론이고, 전 주민이 마을영농조합법인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등 소통과 관계 맺음을 통해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일상 속에 새로운 농촌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여라 삼돌이, 삼돌이축제

우리 마을은 매년 1월, 75세 기준으로 서로 맞절을 하는 단배식을 시작으로 대보름, 복달임 등 매달 크고 작은 잔치와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매년 10월에 열리는 '삼돌이축제'는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은 물론 예비 귀농·귀촌인까지 모두 한데 모여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장입니다. 외지인을 경계하던 마을에서 주민의 80%가 유입된 주민이 된 삼돌이마을은 마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무형의 콘텐츠인 '삼돌이'가 관계 인구를 넘어 정주민으로 이어지는 유형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삼돌이학교

9개의 읍면으로 이루어진 영월군은 매년 400여 명씩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있지만 우리 면과 마을에는 귀농·귀촌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을 가진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삼돌이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구르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가치와 철학은 귀농귀촌 체험교육인 '삼돌이학교'를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삼돌이마을은 지역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나 노력합니다.

“
‘같이’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마을
”



▲ 단종문화제_삼돌이댄스동아리



▲ 복달임



▲ 귀농귀촌인의 집



TALK TALK

미니인터뷰



마을이장
안충선

마을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안충선 (마을이장)

깨끗한 자연환경과 조용한 농촌풍경에 매료되어 삼돌이마을에 정착한 지 15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평온한 자연의 풍경 속에 나만의 독방을 만들어 휴식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건 혼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삼돌이마을의 자연경관 속에 함께 살아가는 마을 주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복이었습니다. 삼돌이마을은 고즈넉한 풍경 속에 늘 활기차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보물입니다. 주민이 우리 마을의 가장 큰 매력이고, 영월군에서 유일하게 주민이 늘고 있는 마을답게 더 많은 주민과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을의 목표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전과 비교하여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이정해 (삼돌이마을 인생그림책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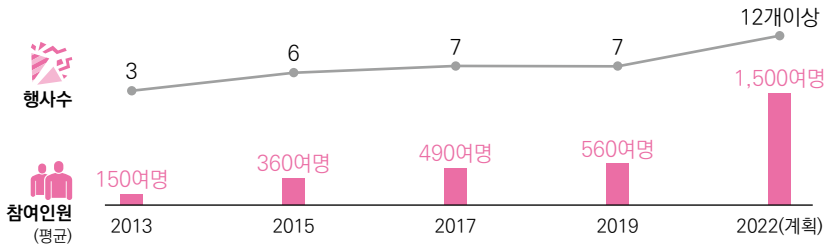
80세 이상의 고령 어르신들과 함께한 '인생그림책' 활동은 마을의 역사와 함께한 어르신들의 삶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모두 경청하고, 삶 곳곳에 자리한 주요 에피소드들에 공감하기도 하며 우리 마을은 더 끈끈해질 수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관계를 이어주는 데에 이러한 깊은 소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의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삼돌이마을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꿈같기도 합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삼돌이마을 주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게 해주었습니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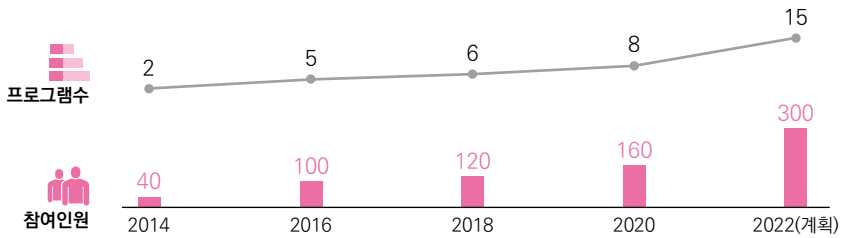


마을사업성과

마을 행사



마을 문화/교육 프로그램



주요사업 추진 실적

<p>2014</p> <p>제1회 행복만들기 전국 콘테스트</p> <p>사업비 : - 주관기관 : 농림부 환경경관 분야 입선</p>	<p>2014</p> <p>창조적마을만들기</p> <p>사업비 : 500백만원 주관기관 : 농림부 폐교를 문화공간 거점으로 조성</p>	<p>2019</p> <p>마을단위 종합개발</p> <p>사업비 : 1,000백만원 주관기관 : 농림부 귀농귀촌인의 집 커뮤니티센터 조성</p>	
<p>2018~</p> <p>농촌축제지원사업</p> <p>사업비 : 16백만원 주관기관 : 농림부 '삼돌이축제' 주민 화합 마을축제</p>	<p>2020~</p> <p>농촌교육문화 지원사업</p> <p>사업비 : 10백만원 주관기관 : 농어촌희망재단 농촌마을 동아리 지원사업</p>	<p>2020~</p> <p>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p> <p>사업비 : 19백만원 주관기관 : 지역문화진흥원 일상속 문화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확산 사업</p>	<p>2021~</p> <p>귀농귀촌체험학교</p> <p>사업비 : 50백만원 주관기관 : 영월군 귀농귀촌 교육과정제공</p>



문화·복지
★ 은상 ★



나와 너, 우리가 함께 흥겨운 경남 사천시 장전2리마을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모두가 노력하는 노루밭마을은 경남 사천시 사천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고 약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가족처럼 함께 사는 우리 마을의 핵심입니다.

● '노루밭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장전2길 71
- 인구수(가구) 66명(43가구)
- 마을자원 감, 감자, 배추, 쌀, 건강문화회관, 놀루와문화센터, 마을공동창고



장전2리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마을단체사진

옛날부터 밥상머리 예절교육을 중요시한 한국은 “밥심”이 힘의 근간이 되는 나라입니다. 저희 노루밭마을은 주민 모두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식사 중의 대화를 통해 가족 사랑을 키우고, 인성을 다듬고, 예절을 익히듯이 우리 마을의 균형 잡힌 먹거리와 공동급식 사업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웃들끼리 서로를 살피고, 정을 나누는 데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노루밭마을은 마을기업으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함께 대봉감, 절임배추, 감자 등을 판매하여 약 3,5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농한기에 중점적으로 공동작업을 하고, 이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마을주민들을 위한 마을공동급식으로

환원됩니다. 수익금으로 200회 이상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복지 경험이 적은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동행하고, 문화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외롭게 사는 마을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앞으로 마을기업 사업을 더욱 확장시켜 365일 주민들이 삶의 기본 복지를 누리도록 힘쓸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는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로 작고 약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노루밭마을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함께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를 실현할 것입니다.



▲ 마을공동작업



▲ 건강체조



▲ 마을꽃길조성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기업

더불어 살고자 하는 저희 마을의 주요 사업이 되고 있는 마을기업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공동급식을 시행하고자 설립한 마을기업은 농한기를 이용해 주민들이 판매 품목을 함께 생산합니다. 대봉감을 수매하여 감말랭이로 만들어 판매하고, 마을주민이 무상으로 빌려준 밭에 감자와 배추를 심어 절임배추와 감자를 판매하였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마을공동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고민과 노력

저희 마을은 원래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해 몹시 조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웃음꽃이 피는 마을이 될 수 있을까, 주민들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생각이 번뜩 났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부녀회와 의논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공동급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노력이 모여 마을 공동급식이 실현되면서 어둡고 생동감 없던 마을에 활기가 돌아나게 되었습니다.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돈독함

문화 활동 프로그램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를 보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 폭발적인 반응으로 문화·복지가 얼마나 삶의 중요한 활력소이고, 재충전의 시간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건강체조·풍물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고, 마을은 뛰어난 단합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
작고 약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모여
따뜻한 우리 마을
”



▲ 공동작업



▲ 공동급식



▲ 노루발풍류회



TALK TALK

미니인터뷰



마을대표
박영욱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전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박영욱 (마을대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각자 자기 농사만 신경 쓰고, 소통이 많이 없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 TV를 보는 정도였지요. 웃음과 활력이 없는 다소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문화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일상을 나누면서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여러 프로그램으로 배우고 체험하며 주민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활력이 생기니 마을이 밝게 변했어요. 밝아진 마을에 귀농·귀촌인 구도 계속 유입되어 아기 울음소리 또한 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해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장전고진마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박영욱 (마을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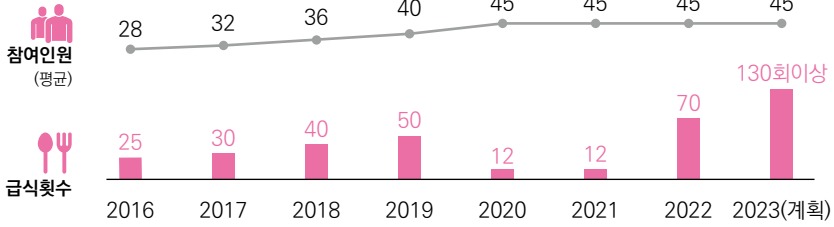
저희 마을의 단합력을 키우는 주요 사업인 마을공동급식을 365일 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더 키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의 배움이 주민들에게 큰 즐거움인 것을 확인했고, 마을의 에너지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도 더 힘써볼 생각입니다. 매년 열리는 노루밭 풍류축제를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노루밭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싶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귀농·귀촌과 문화·복지 특화 마을로 성장해 나눔과 섬김의 치유마을이 되고 싶습니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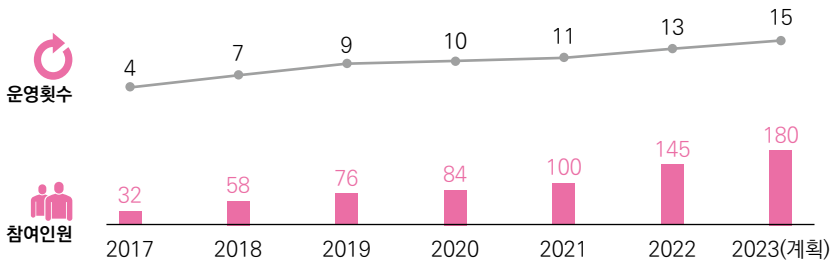


마을사업성과

마을공동급식횟수



마을문화프로그램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16

소규모마을가꾸기

사업비 : 5백만원
주관기관 : 사천시
꽃길조성

2010~11

농촌노인육성지원사업

사업비 : 5백만원
주관기관 : 사천시
문화프로그램 물품 구매

2014~15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사업비 : 2백만원
주관기관 : 사천시주민자치위원회
장미터널 및 장미식재

2016

소규모마을가꾸기

사업비 : 5백만원
주관기관 : 사천시
꽃길조성

2010~11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사업비 : 500백만원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놀루와문화센터,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영화관람시설 구축

2014~15

공익형 직불금 마을공동체

사업비 : 3백만원
주관기관 : 경상남도
마을공동물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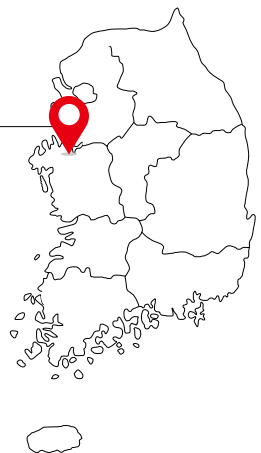


하나가 백이 되는 대박난 산성골 충남 당진시 산성리마을

산성리 마을은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외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농촌마을입니다. 농촌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다양한 문화가 있어 산성리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은 그 어떤 마을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이 치솟아 있습니다.

'산성리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회천로 292-3
- 인구수(가구) 114명(68가구)
- 마을자원 자연자원 : 자모산, 산성지(저수지)
 생활문화 : 회춘유랑단, 마을카페,
 근대사자원 : 거북공원, 감리교회,
 천주교, 문인환호자비



산성리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마을행사 2021 개막공연 회춘유랑단

2018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회춘유랑단 만들기 프로젝트'가 실현되면서 마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자랑 '회춘유랑단'의 평균연령은 81세입니다. 2018년 12월 충남아마추어연극제에서 단체 은상을 수상하며 언론과 방송에서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이슈가 무기력했던 시골 마을 주민들에게 신선한 바람이 되어 마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주최·주관하는 '산성리 두레와 품앗이가 만든 농산물 잔치'라는 축제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가지는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회춘유랑단'의 활발한 대내외 활동은 마을발전을 위한 홍보가 되었음은 물론 이거니와 마을주민들의 일상에도 변화를 가져다주

었습니다. 자기계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주민들은 스스로 이끄는 마을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운영한 마을학교에서 댄스동아리·축구동아리·요가교실·영어회화교실·노인치매예방놀이교실·공예교실·요리교실·체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4명의 마을교사를 육성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으로 2022년 산성골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2022년 충남형 마을 만들기,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연장이 있는 산성골 두레마루관 신축, 귀농인의 집 3가구 조성 등을 통해 자연은 그대로 두면서 즐거움은 이대로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마을로 성장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마을행사 2019 개막공연 회춘유랑단



▲ 마을학교 미술교실



▲ 마을행사 생활농기구 만들기 나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연극동아리 ‘회춘유랑단’

저희 산성리 마을은 마을의 고령화를 오히려 장점으로 보고, 이를 활용하여 ‘회춘유랑단’을 만들었습니다.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평균연령 84세(2022년 기준)의 연극동아리입니다. 2018년 수상을 시작으로 대내외적으로 활발히 활동해온 ‘회춘유랑단’은 마을주민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활동이 마을발전에 기여했음은 물론 주민들이 자기계발을 하는 동기부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은 소중한 동아리입니다.

주민 문화·복지를 위한 마을학교 프로그램

‘회춘유랑단’의 활동으로 자기계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마을주민들이 재능(연극·미술·영어·공예)을 모아 2020년부터 마을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마을교사가 육성되었습니다. 마을학교는 확장을 거듭해 마을 인력으로 충당하기 미흡한 프로그램은 외부강사를 영입하여 보다 탄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주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장·운영하는 마을학교는 주민들의 중요한 문화 활동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 마을행사 2020 자체진행 운영

마을 주민들이 주최·주관·기획하는 마을축제와 문화

산성리 마을은 마을주민들이 직접 여는 여러 마을축제와 문화가 있습니다. 매년 9월 열리는 ‘산성리 두레와 품앗이가 만들 농산물 잔치’는 주민 대통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월대보름에는 ‘보리밭기와 반별 웃놀이 대항전’이 열립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예술적 경관조성문화의 일환으로 솟대 세우기와 장승 만들기도 진행됩니다. 산성리 마을 주민 모두가 문화예술 마을로 성장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마을행사 보리밭기

“
자연은 그대로
즐거움은 이대로!
회춘하는 산성골
”



TALK TALK

미니인터뷰



회춘유랑단
박정식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전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박정식 (회춘유랑단)

연극하기 전에는 아침 먹고 밭에 가고, 점심 먹고 밭에 가고, 저녁 손가락 놓자마자 바로 푹아떨어져서 새벽 같이 일어나 또 그 생활을 반복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만 알았고. 그런데 연극하고 나서부터는 안 그래요. 18살 소녀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어디 가서도 떳떳하고 자신이 있어요. 이제는 남들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해요. 그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난 연극이 좋아요. 밭일이야 내일해도 되고 모레해도 되지만 연극은 내가 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죽어라 할 거예요. 그리고 싫어요.

마을의 최종목표는 무엇인가요?

문한석 (마을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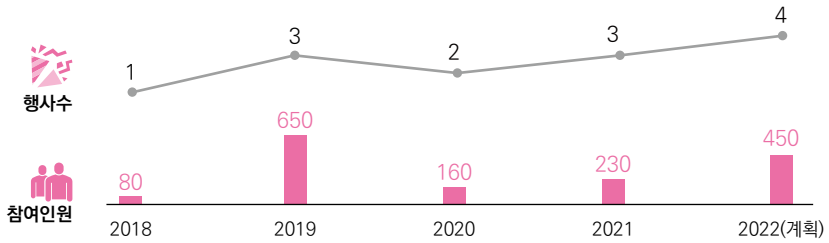
'대박난 산성골'은 자연은 그대로 즐거움은 이대로 간직하는 문화가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을회관 앞에 공연장을 만들어 '회춘유랑단'의 상주 공연을 올리고 싶어요. 그 공연으로 하여 관광객들이 농촌체험과 문화공연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이 안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살기 좋은 문화마을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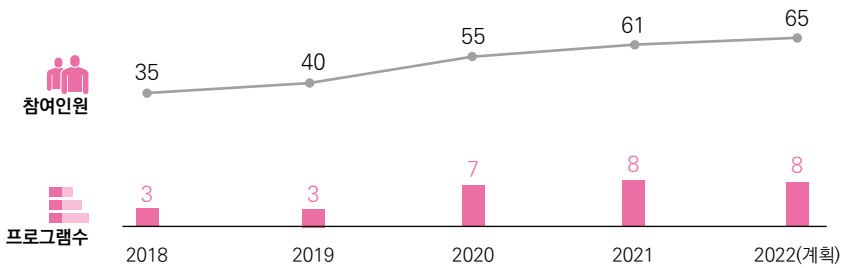


마을사업성과

마을행사



마을학교 교육프로그램



주요사업 추진 실적

<p>2022.05~11</p> <p>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p> <p>사업비 : 15백만원 주관기관 : 지역문화진흥원 회춘유랑단 지역특화브랜드로</p>	<p>2022.04~2023.12</p> <p>충남형 마을만들기</p> <p>사업비 : 500백만원 주관기관 : 충청남도당진시 경관개선 및 문화복지</p>	<p>2022.07~12</p> <p>다목적 체육관 신축</p> <p>사업비 : 200백만원 주관기관 : 당진시 주민 편의시설 조성</p>	<p>2022.07~12</p> <p>거북공원 조성</p> <p>사업비 : 30백만원 주관기관 : 당진시 649지방도 섬터조성</p>
<p>2022.07~12</p> <p>삼지공원 조성</p> <p>사업비 : 30백만원 주관기관 : 당진시 휴경지 활용 섬터조성</p>	<p>2022.03~12</p> <p>농촌체험휴양마을 3건</p> <p>사업비 : 13백만원 주관기관 : 당진시 공동체 활성화 및 경관개선</p>	<p>2022.09~2024.12</p> <p>산성골 두레마루관</p> <p>사업비 : 1,600백만원 주관기관 : 충청남도/당진시 공연장이 있는 예술회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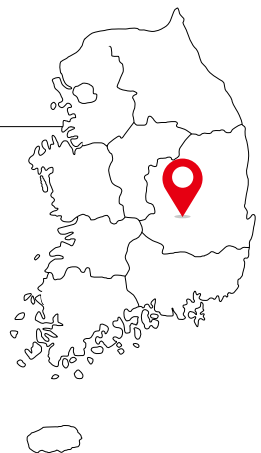


시를 먹고 자란 단감마을 경북 칠곡군 송오2리 마을

칠곡군 내 유일한 단감재배지인 송오2리는 2008년부터 단감잔치를 개최해왔습니다. 2013년 문해 교실을 통해 한글을 배우게 된 할머니들이 쓴 시가 마을방송을 통해 울려 퍼지게 되면서 '시를 먹고 자란 단감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송오2리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금곡길 18
- 인구수(가구) 169명(95가구)
- 마을자원 시를 먹고 자란 단감축제,
 송오단감, 할머니시인



송오2리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전체 인사

기존에 작목반 중심이었던 단감잔치는 할머니들의 시 낭송으로 인문학마을의 활동이 더해지면서 '시를 먹고 자란 단감축제'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는 매년 가을, 마을주민 뿐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송오2리는 문해 교실을 통해 글쓰기 실력을 뽐내며 시인으로 활동하게 된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살아온 인생의 많은 이야기들과 일상이 시로 만들어져 시집, 이야기책, 시 벽화 등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담긴 시를 읽다 보면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감동과 재미가 공존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임에도 시를 만난 할머니들은 일상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산책동아리를 만들어 아침저녁으로 함께 걷습니다. 산책하며 이야기 나누고, 틈틈이 글도 쓰면서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일상을 기록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길가의 풀 한포

기도 다르게 보인다고 하시는 할머니 시인들은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송오2리의 주민들은 이외에도 각종 동아리 활동으로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단감축제를 통해 마을이 알려지면서 이주민들이 서서히 늘어났습니다. 마음씨 좋은 어르신들은 이주민들을 반기며 농촌생활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이주민들은 그들이 가진 재능을 주민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오가며 자연스럽게 마을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송오2리의 주민들은 문화 활동으로 마음을 나누며 즐겁게 살아갑니다.



▲ 2017시를먹고자란단감축제 시낭송



▲ 2018시를먹고자란단감축제 시낭송



▲ 2018시를먹고자란단감축제

“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활동으로
 즐거운 우리 마을
 ”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시를 먹고 자란 단감축제

‘시를 먹고 자란 단감축제’에서는 할머니시인들의 시낭송과 할머니들 시로 만든 노래를 함께 부르고 즐깁니다. 할머니 시인이 진행하는 마을 해설사 투어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할매 시’ 손수건 염색체험도 이루어 집니다. 또한 시가 있는 우리 마을에서 자라 더 달달한 단감으로 만든 먹거리도 판매합니다. 축제 계획 단계부터 준비,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추진합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함께 하기에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 시를먹고자란단감마을

10년간 꾸준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할머니 시인

성인 문해 교실로 한글을 배우던 송오2리의 할머니들은 글을 쓸 수 있게 되자 살아온 이야기와 일상을 종이에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들은 시가 되어 10년 동안 약 500여 편의 작품이 창작되었습니다. 작품들을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외부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돌아가신 할머니 시인 한 분의 손자가 마을을 찾아와 할머니 시가 적힌 벽화에 그에 대해 답하는 시를 적어두고 가기도 하셨습니다.



▲ 할매이야기책 박문임할머니

이주해온 주민과의 활발한 교류로 탄생한 마을동아리

원주민과 이주민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키운 여러 동아리들은 마을을 전하는 소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천연염색동아리에서는 산책동아리 할머니들을 위해 티셔츠를 만들어 선물하였고, 목공동아리는 공부책상과 산책길 벤치, 이정표를 만들어 어르신들 집수리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스톤아트동아리에서 마을 꾸미기를 계획하고 있고, 제빵동아리에서 단감을 활용한 간식을 만들어 주민과 나누어 먹으려고 합니다. 송오2리는 주민들이 서로 도와가며 즐겁게 지내는 마을입니다.



▲ 2017시를먹고자란단감마을 할머니공연



TALK TALK

미니인터뷰



할머니 시인
봉재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전과 비교하여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봉재순 (할머니 시인)

글을 쓰니까 그게 시라고 합니다. 시가 뭔지도 모르고 썼는데, 공책 한 권이 두 권이 되고, 그걸로 서울에 가서 발표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 살다가 회관에 나와서 사람들과 모여서 글 쓰고,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면서 사니까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얼마 전에는 라디오 방송도 했는데, 내가 쓴 시가 방송으로 나가는 것은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전화 오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설레는 기분을 오랜만에 느꼈어요. 또 우리 할머니 시인들의 활동으로 마을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관광객들이 우리가 쓴 시가 적힌 벽화도 구경하고 가니까 행복합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함께 마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한달 (마을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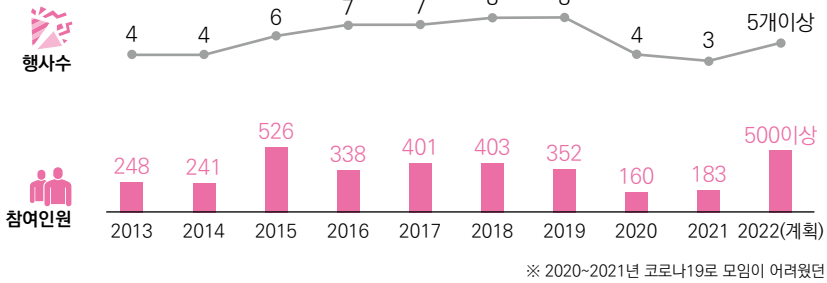
앞으로 꾸준히 주민들과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세계절 내내 멋있고 행복한 송오리를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마을은 봄이면 살구꽃밭에서 시 백일장을 열고요. 여름에는 마을회관에서 천연염색 손수건 만들기 체험과 스톤아트체험 등을 하며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냅니다. 가을에는 마을의 주요 행사인 '시를 먹고 자란 단감 축제'를 즐기고요. 겨울에는 메주 만들기 체험을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다채로운 주민들의 활약이 있기에 지금 있는 프로그램에 더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이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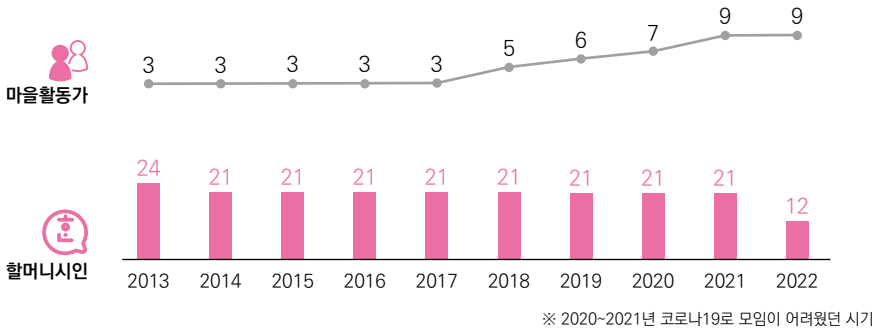


마을사업성과

마을 행사 및 참여인원(방문객 포함)



문화자원 발굴 수(인적자원)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13~22	2014	2015~2018	2019
칠곡인문학마을 특성화사업 사업비 : 34백만원 주관기관 :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인문학마을살이 시를먹고자란단감축제 단감백일장, 문패만들기 생각밥상, 마무리밥상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사업비 : 17백만원 주관기관 : 칠곡군 보건소 운동교실(요가 총 48회)	송오2리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 사업비 : 500백만원 주관기관 :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문화허브홀(마을회관 리모델링) 경관정비(시 벽화) 주민교육, 동아리교육 복삼읍 건강마을조성사업	마을자율개발사업 사업비 : 2백만원 주관기관 : 칠곡군 보건소 건강마을 웃음건강교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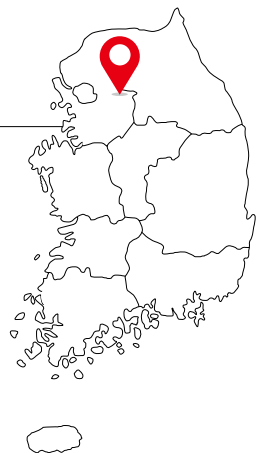


다양한 문화 활동이 있는 즐거운 산촌 경기 가평군 초롱이둥지마을

초롱새가 서식하고 초롱꽃이 피는 초롱이둥지마을은 경기도 가평군 묵안리에 위치한 산촌마을입니다. 잘 보존되어 있는 자연생태계와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낸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활력이 넘치는 마을입니다.

'초롱이둥지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906
- 인구수(가구) 397명(248가구)
- 마을자원 검은바위(장수바위), 동고개 장승,
양주조씨제실(탕화사), 조세희 기념관,
청풍김씨 세거지, 초롱이둥지마을 돌레길,
호랑이소나무, 두꺼비바위



초롱이동지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주민 뮤지컬단원

산촌마을의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열었던 2008년 <제1회 마을 두릅축제>가 마을의 작은 잔치로 자리 잡혀 2022년 <제15회 두릅축제>까지 개최되었습니다. 볼거리·먹거리·놀거리가 생기면서 마을 주민과 귀촌인의 교류가 생겼고, 이러한 공동체 활동은 주민 모두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민 모두 참여 가능한 여러 문화 활동을 만들어졌습니다. 예술교육 부문으로는 드럼·통기타·하모니카·오카리나 프로그램, 먹거리교육 부문으로는 바리스타·식생활개선·한식·와인·발효식초·막걸리교육·전통음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강교육 부문으로는 웃음치유·노래교실·요가·국선도·등산 프로그램, 문화생활 부문으로는 흥패션·공예·캘리그래피·서예·찾아오는 영화관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개의 동지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동지밴드가 만들어지면서 크고 작은 마을 잔치에 멋진 음악이 흐르게 되었고, 술 공방에선 전통 막걸리가 익어갑니다. 또한 주민들이 하나둘씩 한식조리사·바리스타·막걸리제조 등의 자격증에 도전하여 총 1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을주민의 강사가 되어 재능기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연스럽게 마을활동가들이 생겨나 마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웃 마을과도 이러한 재능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설악권역 우리 마을과 함께 가일2리, 옷샘마을, 반딧불마을 이렇게 4개의 마을이 이웃4촌 플러스 네트워크 연대마을입니다.



▲ 막걸리축제



▲ 전통막걸리교육



▲ 마을특산물홍보

“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로 이룬
문화·복지라는 이름의 숲
”

선주민과 새로운 주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활동

초롱이등지마을은 산골에 위치한 문화·복지 소외지역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함께 공유합니다. 건강·웃음·꿈·행복이란 주제를 가진 각 프로그램 활동으로 선주민과 새로운 주민이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다양한 문화·복지 활동을 하고, 관심과 배려·협동·화합하게 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주민 모두가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주민잔치

역할분담으로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우리 초롱이등지마을은 동지대장(건강동지·웃음동지·꿈동지·행복동지)을 두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 스스로 누리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악기·요리·패션·교육 등 다양한 분야가 있어 다른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마을의 행복지수 역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자격증까지 취득하여 마을주민의 강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할분담과 프로그램 활성화로 주민들의 자부심과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함께 커가고 있습니다.



▲ 캘리그래피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홍보망 구축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 나눔을 위해 상시적으로 동지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홍보체계를 마련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초롱이등지마을 공식 홈페이지 알림과 지역 신문 보도, 현수막 설치, SNS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동지회, 부녀동지회, 청년동지회 홍보망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연락망을 구축하여 향후 돌아올 주민과 거주할 주민의 마을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천연염색동아리



TALK TALK

미니인터뷰



마을주민
문부흥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한 특별한 의미나 계기가 있나요?

문부흥(마을주민)

초롱이동지마을이 처음부터 행복한 마을은 아니었습니다. 문화 소외지역이었던 산촌마을이 숲속 문화·복지 마을로 크게 성장하기까지 많은 기다림과 끊임없는 홍보, 동지대장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문화·복지가 그리운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임을 시작하면서 동지 사랑방이 상시적으로 운영되었고,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 나눔을 통해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꾸 모이면서 문화·복지가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관심으로 주민들 모두가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지지해주는, 돌봄이 가능한 마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행복한 마을은 없으며 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임을 다른 많은 마을들과 공유하고, '행복마을 만들기'를 전도하는 마을이 되고자 콘테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초롱이동지마을의 활동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문부흥(마을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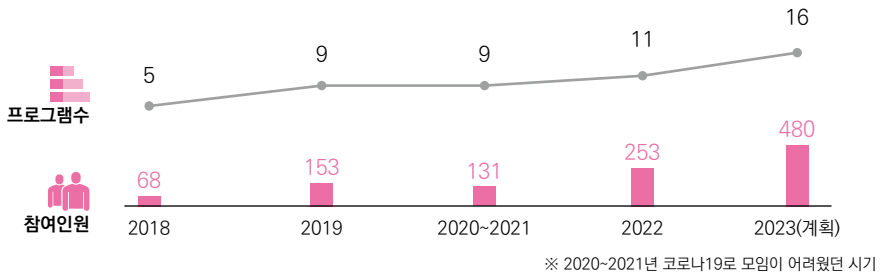
초롱이동지마을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인 댄스교실, 식생활 개선 부녀회에서 출시할 피크닉 도시락과 50명의 초롱이 합창단 운영 및 공연, 이웃4촌 플러스 네트워크 연대마을 확장입니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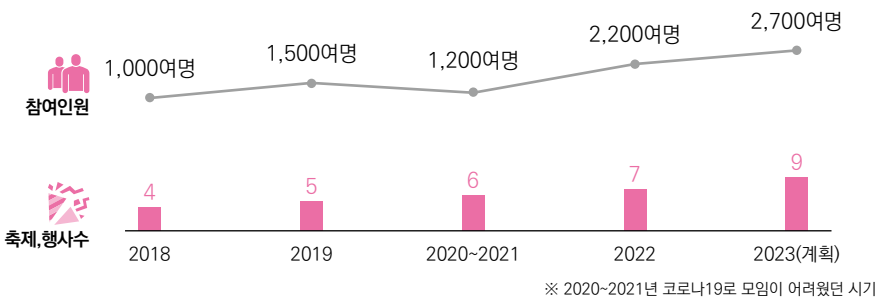


마을사업성과

문화복지 프로그램



마을축제 및 행사 참여 수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18~21

아람마을만들기사업

사업비 : 62백만원
주관기관 : 가평군
마을 만들기 사업

2019~22

평생학습마을

사업비 : 100백만원
주관기관 :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2019~22

농촌축제 지원사업

사업비 : 42백만원
주관기관 : 농림부
농촌마을축제

2021

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비 : 12백만원
주관기관 : 농림부
농촌마을축제

2022

마을종합지원사업

사업비 : 30백만원
주관기관 : 경기도
마을축제종합사업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사례집

마을만들기 분야



03

경관·환경

공간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환경이 있는
우리 농촌마을을 소개합니다.

금상 경상남도 거창군 갈지마을	72
은상 전라북도 순창군 덕흥마을	78
동상 충청남도 서천군 마양마을	84
입선 강원도 평창군 약초마을	90
입선 제주도 서귀포시 오조리마을	96





약속을 지키는 경남 거창군 갈지마을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인 「선화공주 이야기」가 전해지는 취우령 자락에 위치한 갈지마을은 어미의 품에 안긴 듯 마을을 보호하는 방풍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갈지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갈지길 62

인구수(가구) 237명(116가구)

마을자원 창포가 흐르는 도랑과 산책로, 방풍림, 마을공동꽃밭, EM미생물 배양실, 작은도서관, 농경유물관, 갈지방앗간, 선화공주벽화길, 장미터널, 업사이클링 공작소 등



갈지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갈지마을 전경

갈지마을은 창포가 흐르는 도랑과 산책로, 방풍림, 선화공주벽화길, 장미터널 등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갈지마을의 소중한 자원은 아름다운 마을에 대해 함께 상의하고 만들어가는 갈지마을 주민들입니다. 마을주민 모두가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 아름답고 행복한 갈지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와 농약, 쓰레기로 병들어가던 마을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만들고, 행복한 마을로 변화시켜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음이 주민들의 자부심이 자 자랑입니다. 주민들은 스스로와의 약속인 “주민실천 선언문”과 “축산농가 결의문”을 통해 마을의 경관과 환경을 돌봅니다. 다른 마을과 다르게 축사와 과수원을 마을에서 들어내지 않고 축산농가와 과수농가가 마을의 일원으로 함께 공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 마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보완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추진체계에 따라 리더교육 → 찾아가는 마을대학 → 마을 만들기 소액사업 → 농촌현장포럼 → 마을자율개발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며 주민간의 소통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노력들과 마음들이 모여 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동을 인정받아 수상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을 찾는 귀농·귀촌·귀향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떠나는 마을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전입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고 싶은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 깨끗한 도랑



▲ 업사이클링 희망 화분



▲ 공동 꽃밭

“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고 싶은 마을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소통과 전문가 지원으로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회의장은 싸움판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거창군의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추진체계 과정을 차근차근 따르며 달라졌습니다. 주민간의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갈지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동이 주민 주도로 구체화되고 실현까지 가닿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창군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경남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남도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마을도서관, EM배양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약속과 동참을 통한 공생

'주민실천선언문'으로 마을주민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한 갈지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축산농가 결의문' 작성과 동참으로 깨끗한 축사관리를 하고 있으며 EM을 활용한 친환경 퇴비생산을 통해 축사와 마을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갈지마을을 위해 마을과 연접한 과수농가와 일반농가는 농약 사용을 줄이고 EM과 친환경 퇴비를 활용하여 건강한 농산물 생산에 동참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환경정화활동

행복농촌 만들기의 원동력이 되는 멈추지 않는 도전

아름답고 행복한 갈지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동을 인정받아 2018년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의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분야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 마을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동을 하여 2021년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엔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가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을의 성적을 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갈지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 통통 방앗간



TALK TALK

미니인터뷰



마을주민들



앞으로 5년 후 마을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지덕범 (노인회 총무)

갈지마을의 최종 목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온 마을을 울리고,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꽃을 심고 가꾸면서 유년시절과 노년시절을 같이 마을에서 쭉 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한 특별한 의미나 계기가 있나요?

조익현 (갈지마을 2반 반장)

저는 학창 시절 갈지마을에서 자랐고, 스무 살 이후 약 십 오년 동안 타 지역에 살다가 귀향하였습니다. 어릴 적 마을 모습은 집집마다 키우는 농우의 축사 폐수가 그대로 도랑으로 흐르는 통에 도랑물을 오염시켜 모기와 파리가 들끓고, 마을의 골목길엔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귀향을 하게 되면서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도랑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마을 곳곳에는 소공원과 꽃밭이 조성되어있었어요. 골목골목도 항상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아름다운 마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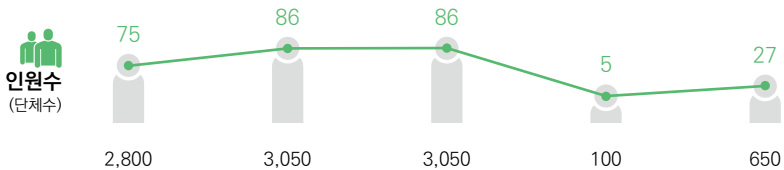


마을사업성과

수상실적

 2014, 2015 내일의도시 창조거창 표창 <거창군수>	 2014 지역환경보전 표창 <낙동강 유역환경청장>	 2015 환경보전 표창 <환경부 장관>
 2018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은상 <환경부 장관>	 2020 더 큰 거창도약 표창 <거창군수>	 2021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은상 <농협중앙회장>

마을 방문자수(마을가꾸기 선진사례 견학)



※ 코로나19로 2020년, 2021년 마을자체 방문객 제한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17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사업비 : 3백만원 주관기관 : 거창군 마을담장 쌓기 재료 구입	2017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사업비 : 10백만원 주관기관 : 거창군 마을 벤치, 데크제작 재료구입	2018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사업비 : 3백만원 주관기관 : 거창군 골목 이름표제작 재료 구입	2020~22 마을자율개발사업 사업비 : 3백만원 주관기관 : 거창군(농식품부) 문화관, 체육공원 조성 등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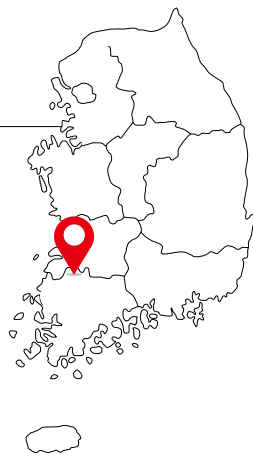


덕후들이 흥이 나는 전북 순창군 덕흥마을

봉덕리에 위치한 수수한 농촌 풍경의 덕흥마을은 26가구로 매우 작은 마을이지만 주민 한 명 한 명이 개성과 장기를 가지고, 마을지킴이 '덕후'로 활동하고 있는 흥 많은 마을입니다.

'덕흥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덕흥길 45
- 인구수(가구) 54명 (26가구)
- 마을자원 오미자, 복분자, 두릅, 콩, 배추, 고추, 인삼, 당산나무, 선돌, 백중행사, 당산제, 만남의 장소, 행복나눔 냉장고, 분리수거장,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 구암사



덕흥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주민총회

마을 뒤로 내장산국립공원과 백양사, 구암사가 있어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잠시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들에게 아늑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는 마을입니다. 덕흥마을은 약 20년 전부터 마을 만들기 활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해왔지만 그 과정이 더였습니다. 4년 전 보조사업 없이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 전체에 벽화를 그렸던 것을 시작으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만들기 활동을 기록해왔습니다. 덕흥마을의 경관·활동 개선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 나아가 후세를 위한 마을 만들기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흥마을은 여러 마을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특산물로는 오미자, 복분자, 두릅, 콩, 배추, 고추, 인삼 등이 있습니다. 역사자원으로는 당산나무와 선돌, 백중행사, 당산제가 있으며 백중행사와 당산제는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덕후들이 흥

이 나는' 덕흥마을의 가장 큰 자원은 각자의 재능을 마을 만들기 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덕후들, 바로 주민들입니다.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기회를 접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모든 주민들이 마을 발전과 관련된 교육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노력합니다. 다들 어지러진 덕흥마을의 농촌풍경은 친숙하기도 하지만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합니다. 마을의 모든 공간에 디테일이 숨어있어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습니다. 수수함 속에 행복이 짝 들어차 있는 행복한 마을, 덕흥마을입니다.



▲ 화분가꾸기



▲ 마을 표지판 제작



▲ 마을 표시판 제작

‘사업’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만나기

덕흥마을은 일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남 그 자체에 집중하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짜를 정해놓지 않은 비정기적인 모임 임에도 활발한 참여를 기반으로 매년 마을 단체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마을의 일을 추진하니 공동체의 신뢰가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다정한 마을이 되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민 간 불화가 없습니다.

주민 역량강화의 중요성

지난 20년간 덕흥마을에서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지만 2년 전부터 비로소 중간지원조직과의 만남을 계기로 하여 행정과의 관계가 늘어났고, 각종 역량강화 교육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족함을 인지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역량강화 교육을 수용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덕흥마을을 변화시켜 왔고,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관·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마을 스스로 마련

덕흥마을은 적은 인구의 마을이지만 경관·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여러 활동을 통해 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폐자원을 판매하고, 무인냉장고를 운영하며 비용을 공동살포 합니다. 그리고 백중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매년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없더라도 덕흥마을을 더 흥이 나는 마을로 만들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경관·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나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 현재는 각종 공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

순창의 등대 같은 마을이 되고 싶습니다.

”



▲ 마을단체여행



▲ 역량강화_현장포럼



▲ 백중행사



TALK TALK

미니인터뷰



마을이장
안광일

앞으로 우리 마을이 추진하려는 일은 무엇인가요?

덕흥마을이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마을회관 양성화입니다. 마을회관은 우리 덕흥마을의 유일한 실내 공동체 활동 공간입니다. 그러나 토지 문제가 복잡하여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 도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덕흥마을은 자체적으로도 마을 가꾸기를 진행하여 왔었지만 더 많은 기회를 위해 공모사업에 열심히 도전하는 지금, 이는 마을 발전과 관련된 활동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30% 정도 양성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덕흥마을회관을 온전히 마을의 품으로 안기도록 하고자 주민들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은 밤에 무서울 정도로 어둡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깰 수 있도록 순창의 등대 같은 마을, 밤이 아름다운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숲정이 일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을 자원 중 하나인 행복 나눔 무인빙장고 운영의 성공 경험을 확대하여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이를 직접 유튜브로 제작하여 홍보도 하고, 도농교류의 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5년 후의 우리 마을 모습을 그려주세요.

덕흥마을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은 살고 싶은 마을이 되어 젊은 층들의 유입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적은 인구를 가지고, 생존을 위한 마을 만들기 활동이었습니다.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를 기점으로 이제는 후세를 위한 마을 만들기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mini! interview

마을사업성과

활동 내용



덕흥마을 벽화 조성

보조사업 없이 자원봉사
단체와의 협업으로 벽화 조성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음〉



폐자원 판매

분리수거장 설치,
폐자원 판매로 기금 마련
〈연 평균
약 200만 원 기금 확보〉



행복나눔 냉장고 운영

만남의 광장(데크, 쉼터) 설치,
무인 양심 냉장고 운영
〈하절기 판매기금
약 20만 원 기금 확보〉



공동체활동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마을회관 개·보수)
〈회관 노후 시설 교체〉



역량강화

주민 스스로 마을 자원을 찾고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과
지원을 수용하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

주요사업 추진 실적

환경·생태계

국화꽃 향기나는
마을 만들기
밤이 아름다운 마을

주민주체

마을 영상기록 전문가 양성
업무 분장에 따른
마을 행사 진행

정체성 확립

당산제 등 마을 전통 문화
행사 보존, 덕흥마을의
지금울 기록하기 위한 미디어
기록 활동

마을의 브랜드

외부인 방문 유도 활동 확대,
행복 나눔 냉장고 운영
확대로 외부인 주민 간
교류의 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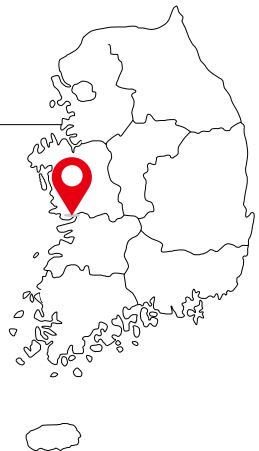


대한민국 최고 ECO 마을을 꿈꾸는 충남 서천군 마양마을

대한민국 최고 친환경 농촌경관을 꿈꾸는 ECO 마을 마양리는
대한민국 청정 농촌 환경의 시작입니다. 마양리는 환경을 위해
'안 하기! 덜 하기! 자주 하기!'를 실천합니다.

'마양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로 241번길 39
- 인구수(가구) 85명(47가구)
- 마을자원 마을보호수(팽나무), 한산갈숲체험마을,
 마양리효도방, 다양한 인적자원,
 마을공동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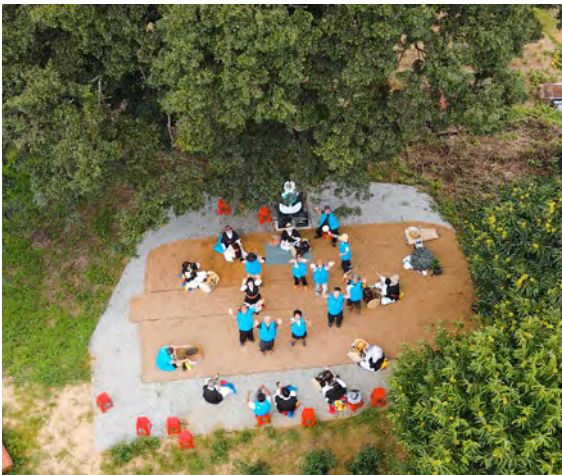
마양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금강이 보이는 마양리 전경

올해 있었던 전대미문의 가뭄과 가늠하기 어려운 장맛비는 여든의 노인도 지구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양리는 환경을 위해 쓰레기는 안 태우고, 제초제는 덜 쓰고,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는 자주합니다. 오늘도 폐현수막으로 직접 만든 업사이클링 쓰레기 수거 가방을 메고 들녘을 돌아봅니다. 마양리는 '대한민국 청정 농촌 환경의 시작'이라는 신념으로 생태환경 마을 가구기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CO 마양의 환경 가구기는 농촌마을의 잘못된 관습 혹은 습관, 무관심을 개선해보자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ECO 마양으로 하나 된 주민들은 개별 농가의 소각로를 없애고, 논밭에서 쓰레기 태우기를 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 노후 담장 철거 후 가정별로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마을 공동우물을 복원하고 마을 안길에 꽃나무

를 심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천을 통해 정갈하고 단정한 마을 풍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마을 자체 비용으로 언덕 팽나무 주변을 말끔하게 공원화하여 제1회 환경축제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서천군 한산면 지역에 위치한 ECO 마양은 전국 최초로 소각로가 없는 마을이자 쓰레기를 태우지 않는 마을입니다. 숲과 들녘이 살아 숨 쉬는 마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토박이와 귀촌인이 손을 잡고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고 있습니다. ECO 마양의 환경에 반해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팽나무 앞에서 마을 주민들



▲ 마을축제에서 수호목에 카네이션달기



▲ 환경 지키미 봉사활동

“
 한마음 한뜻으로 일군
 연기 없는
 청정한 우리 마을
 ”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시작하는 에코

마양마을은 청정마을을 지향하던 원주민과 생태환경을 꿈꾸던 귀촌인의 바람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에코 마을입니다.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리더교육, 환경교육을 통하여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여 마을 내 생활 편의 시설 및 노후 담벼락 등 주거 환경 개선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에코 마양마을 만들기 활동에 대한 주민 호응 및 참여를 바탕으로 각자 개인 공간 환경을 개선하는 페비닐 수거 및 쓰레기 소각로 없애기 등을 실천하였습니다.



▲ 탄소중립 벽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마을 주민들

쓰레기 안 태우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작은 실천사항부터 자연경관보호 활동,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작업 등을 전개하면서 주민 의식이 크게 개선되었고, 실천하는 힘 또한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부녀회는 마을 환경 보존 및 업사이클링 아나바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청장년회는 마을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천연농약 연구회 운영 및 농약과 제초제 오남용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노인회는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재활용 분리수거장과 에코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지역과 함께 이루는 2050 탄소중립 실천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지키는 활동은 곧 후손들에게 건강한 농촌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적극적인 지도자들의 설득과 출선수범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코 마양 만들기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기대보다 높아 '연기 없는' 마을이 되는 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립생태원과 함께 하는 마을 환경 교육 및 재활용 프로그램, 마을 내에서 진행한 자연 지키미활동 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환경 지키미 봉사활동



TALK TALK

미니인터뷰



마을주민들

에코 마당을 만들기 위한 소통은 어떻게 하나요?

이환복 (청년회장)

우리 마당마을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마을에 있는 갯벌에서 조개잡고, 물놀이하고, 놀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역량강화 사업 같은 걸 할 때에도 풍물놀이만 즐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꼭지를 정해서 주민들이 모여요. 예를 들면 갈대밭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행사를 하거나 말이에요.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꽃이나 관목을 심을 때에도 회의를 통해서 정해요. 마을 추진위원들이 회의할 때나 부녀회, 노인회가 회의할 때 다들 자유롭게 의견을 내요. 기존 계획에 새로운 의견을 더해 함께 고민하면서 환경적 활동들을 추가하고, 진행합니다.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셨나요?

심명희 (총무)

어느 농어촌이든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마을은 이미 수년전부터 주민들이 풀뚝 뭉쳐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보자, 우리 마을부터 시작해보자, 다짐하고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귀촌한 지 10년 차인 우리 집은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풀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수년전 이장님을 중심으로 청장년 회원들이 환경정화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른 주민들도 제초제 사용과 쓰레기를 태우는 일에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교육과 실천으로 마을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과 교육에 꾸준히 참여하고 노력하며 마음속으로 꿈꿔왔던 청정하고 쾌적한 삶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mini interview



마을사업성과



마을 생태·환경 추진 내역

2018	태양광가로등설치	추진량 : 55	정원을 밝히는 태양광가로등설치
2018~21	담장없애기	추진량 : 6	콘크리트담장없애고 장미덩굴울타리조성
2018	문패	추진량 : 44	도자기문패설치
2018	마을안길경관조성	추진량 : 1만주	남천식재
2020~	eco활동대	추진량 : 55	마을청년회중심eco활동(천연 소득제품 제조)
2021	소각로 철거	추진량 : 2	가구내 소각로 철거
2021~	엿사이클링	추진량 : 필요시	폐현수막 활용 eco가방 표어 풋말제작
분기별	영농폐기물 분리수거	추진량 : 1~2회	영농폐기물 분리수거
매해	마을소독	추진량 : 5회	집주변 및 공동장소 소독

주요사업 추진 실적

<p>2011</p> <p>한마을 농심만들기</p> <p>금액 : 20,000천원 마을농업환경개선 사업</p>	<p>2014</p> <p>농촌공동급식시설</p> <p>금액 : 50,000천원 경노당 주방 증축</p>	<p>2015</p> <p>공동생활홈 조성사업</p> <p>금액 : 120,000천원 공동생활홈(효도방)신축</p>	
<p>2017</p> <p>농촌생활활력화시범사업</p> <p>금액 : 20,000천원 생활환경개선 장비지원, 교육프로그램</p>	<p>2017</p> <p>마을가꾸기 소액사업</p> <p>금액 : 6,000천원 마을화단,포켓정원조성, 쓰레기분리 수거장조성</p>	<p>2018</p> <p>희망마을 선행사업</p> <p>금액 : 30,000천원 마을입구 정원조성, 꽃길조성, 사물놀이교육</p>	<p>2019~20</p> <p>창조적마을가꾸기</p> <p>금액 : 500,000천원 마을편의시설, 태양광 가로등 설치, 역량강화</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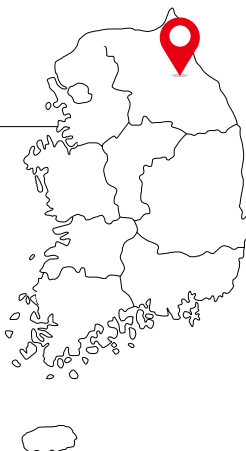


전통과 환경이 살아있는 강원 평창군 약초마을

오대산 자락에 포근히 묻힌 전통적인 강원도형 산촌마을인 약초마을은 해발고도 700m에 위치하여 여름철에는 쾌적하고 겨울철에는 많은 강설량으로 아름다운 설경을 자랑합니다.

'약초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방아다리로 236
- 인구수(가구) 121명(47가구)
- 마을자원 구남박골, 심막골, 앞골 등 골이 깊은 계곡, 성황당 3곳, 마을 중심으로 흐르는 냇가(두일천), 대로변 주변의 마가목 가로수, 옛날 통나무 수로(귀새 500m), 약초마을체험관, 귀농귀촌센터 등



약초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약초마을 전경

약초마을이라는 이름은 먼 옛날 병을 고치고 약초를 구하기 위해 마을을 찾은 심마니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지금도 고랭지 채소와 함께 당귀·광활·백초·천궁·작약·황기 등의 많은 약초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마가목을 가로수로 꾸준히 식재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올해까지 마가목 6,200주를 심었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마가목 가로수에는 빨간 열매가 열립니다. 황학 코스모스 꽃씨를 10kg을 뿌려 가을이면 마을 곳곳이 만발한 노랑 꽃길입니다. 약초향과 함께 평화롭게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의 옛 모습을 이어가기 위해 소를 이용한 전통 농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논밭에 물을 대던 통나무 수로인 '귀새'를 새로 길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500m에 달하는 귀새는 2008년에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끌과 톱을 이용해 금강송

의 흠을 파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나르며 불렀던 노동요인 '목도소리'를 보전하기 위해 목도소리보전회를 설립하고 마을주민들과 여러 축제에서 시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옛 모습을 보전하는 것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마을 환경·경관의 분과 조직을 구성하여 '마가목 가로수 식재', '마을 구석 구석 꽃씨 뿌리기', '농업 폐기물 관리', '생태계 보전 활동', '마을길 표지판 정비'와 같은 마을 환경 보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 마을 방문객에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휴식을 제공하는 한편 마을 주민들도 살기 좋은 일상을 누리고 서로 화합하는 마을이 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깨끗한 환경의 마을넷가



▲ 귀새 제작



▲ 폐교랑 심터조성

“
**잘 보존된 농촌 경관과
 약초 향이 나는 우리 마을에
 행복한 미래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을의 공동체는 “참여”에서 비롯된다는 주민들의 인식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우리 반’, ‘우리 마을’이라는 소속감이 강화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소외되었던 개인들도 참여하고 소통하여 ‘우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귀새를 만들었던 것처럼 마을에 필요한 일이라면 주민들이 가까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강화된 조직 활동으로 목도소리 민속활동, 정월 행사 등을 진행하며 고령화된 농촌마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갈등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결해나가며 마을 공동체의 유대감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 성황당정비

다수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하면 된다”라는 정신

‘선진지 견학, 농협주관 pls교육, 외부강사초청 교육, 평창군 쓰레기소각장 방문교육 등 다수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마을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국토대청소로 집 안팎에 쌓여 있는 각종 폐기물을 합동으로 처리하므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하였고, 이제는 쓰레기 소각 없는 마을이 되어 ‘탄소 제로’라는 단어를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마을사업을 추진 하려고 합니다.



▲ 국토대청소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마을소득사업

마을의 성장을 위해 다함께 힘쓰면서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부담도 공동으로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마을소득사업의 일정 금액을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거두던 이·반장 모곡제도도 마을소득사업으로 대체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또 한 번 줄이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으로 활성화되었던 시기나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시기를 통과하며 주민들이 행복한 농촌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고심합니다.



▲ 굿메너실천행사



TALK TALK

미니인터뷰



마을이장
이연학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한 특별한 의미나 계기가 있나요?

이연학 (마을 이장)

2018 동계올림픽 이후 활성화되던 마을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객이 현저히 줄어들어 진행하고 있던 소득사업의 존폐여부를 논할 정도로 침체되었습니다. 소득사업으로 운영하였던 약초마을체험관(구 두일초등학교 폐교)은 마을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이 체험관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의 역량을 펼쳐 코로나 이전의 활기를 되찾고자 농촌행복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약초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연학 (마을 이장)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개선된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완화 이후 관광객 유입이 다시 증가할 것입니다. '평창'이란 이미지에 맞게 환경보전이 잘 되어있는 우리 마을의 농촌경관 속에 행복한 미래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마가목 증식,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마을 구석구석 꽃씨 뿌리기 등의 계획 추진과 함께 마을외간 앞 잎새 물레방아처럼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며 평창의 으뜸마을에서 우리나라의 대표마을로 거듭날 것입니다.

mini interview



마을사업성과

수상실적



2021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동상



2022

행복농촌가꾸기 콘테스트 진행중

마을 환경보존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 내역



휴당물저감활동

국지성 호우에 휴당물이 냇가로 흘러가지 않게 조치



pls교육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농협)



마을규약 제정

경관환경분야 조치강화



마을도량살리기 실천운동

무분별한 적도 제한, 농수로에 활착력 강한 식물 식재



굿매너활동

청결, 친절, 봉사, 질서 활동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내역

2005

디지털공부방

금액 : 20,000천원
주요내용 : 컴퓨터 외 디지털 기계장비구입 주민교육

2006

예쁜마을가꾸기

금액 : 30,000천원
주요내용 : 마을가꾸기 (노후지붕도색 외)

2008

전통테마마을가꾸기

금액 : 200,000천원
주요내용 : 체험관 리모델링 (폐교 초등학교), '귀새' 제작

2010

새농어촌 건설운동

금액 : 500,000천원
주요내용 : 마을가꾸기 및 마을부지매입

2018

권역정비사업

금액 : 3,670,000천원
주요내용 : 방아다리권역 정비사업

2020~21

농촌살아보기

금액 : 40,000천원
주요내용 : 귀촌희망인 농촌살아보기

2020~22

공동급식

금액 : 15,000천원
주요내용 : 마을주민 공동급식장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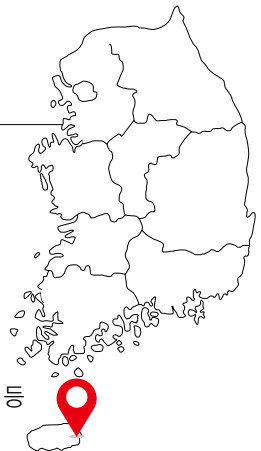


첫 햇빛 닿는 제주 서귀포시 오조리마을

마을 안의 큰 연못과 마을 앞 포구의 물이 거울처럼 맑아 여기에 나를 비추어 보고 마음을 닦는다는 뜻을 가진 '오조리(吾照里)'는 제주도 전통촌락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여 아름다운 경관 자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 '오조리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 83
인구수(가구)	1,246명(675가구)
마을자원	지역특산물: 소라, 성게, 우뚝가사리, 툫, 갈치, 무, 콜라비, 역사·문화자원: 오소포 연대, 오조리 별제단, 축제 할망제, 진귀니 물당, 용천수 등



오조리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드론으로 촬영한 오조리

아기자기한 돌담길이 많아 걸어서 산책하기 좋은 마을로 고즈넉한 마을 돌담길을 따라 제주 올레 제 1~2코스와 성산-오조 지질트레일 코스가 지나갑니다.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인 성산일출봉과 인접해 있고, 1960년대 오조리 주민이 힘을 모아 직접 건설한 내수면 양식장과 제주의 독특한 자연경관인 오름(식상봉, 해발 46m),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47호로 지정된 황근(黃槿) 자생지, 철새도래지로 지정된 연안습지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둘러싸인 제주의 보석과도 같은 마을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오조리마을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깁니다. 연중 수시로 개최하는 회의를 통해 마을 사업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꼭 거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주민 간 원활한 소통과 투명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분

기별로 정기적인 마을 회의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중 수시로 마을 경관 정비 활동을 전개하면서 깨끗한 마을도 만들고 마을 내 대소사를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특히 마을특화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 가꾸기를 진행해 온 과정에서 지켜온 회의 문화는 마을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준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조리는 주민들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숨 쉬고, 방문객이 계속 머물고 싶어 하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마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환경자산을 물려주고자 한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향과 같은 포근함으로 기억에 남는 오조리, 행복한 경관 마을의 오조리가 되고 싶습니다.



▲ 올레길과 철새도래지



▲ 그림책공감 외부



▲ 축복의 마을(식산봉과 조개체험장)

“
자연이 숨 쉬고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머물고 싶은
우리 마을
”

공동체 회복을 통해 만들어낸 주민 합심과 추진 동력

농촌과 어촌이 어우러진 오조리마을은 풍성한 자연경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구 변동과 개발 행위로 인해 마을 인근 환경과 연안 습지가 오염에 시달리는 등 위기를 겪었습니다. 2017년부터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문화 마을 만들기 컨설팅과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여 마을 경관복원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조리마을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식개선과 참여확대로 지속가능한 ‘첫 햇빛 닿는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 연안습지 보호(생태계 및 철새보호)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주민과 마을의 자발적인 마을 가꾸기 활동

오조리 주민들은 자신의 집 앞 경관뿐 아니라 마을 생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마을 사업으로 조성한 무료 주차장 빈터를 비롯하여 마을 곳곳에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내 집 앞 내가 청소하기 운동 등 가장 기본적인 마을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이밖에도 마을 가꾸기에 대한 정기적인 마을 회의를 통해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과 마을 경관자원보존을 위한 활동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 노인 회원들도 공동체 활동에 참여 화단정비 모습

소중한 환경자산을 지켜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의지

여러 해에 걸친 오조리 마을주민들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오조리의 자연경관들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훌륭한 환경자산으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오조리 마을의 아름다움에 반한 이들이 하나둘 이주하기 시작해 지난 5년간 인구 증가율이 30%에 이를 정도로 오조리마을은 성장·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민 개개인의 환경자산보존에 대한 의지와 함께 노력하는 마을공동체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 내수면에 비친 식산봉과 저멀리 한라산과 오름



TALK TALK

미니인터뷰



이장
고기봉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한 특별한 의미나 계기가 있나요?

고기봉 (이장)
그동안 마을주민들이 서로 단합해 마을을 가꾸면서 마을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가꾸고 청결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했어요. 우리 마을의 경험을 통해서 경관·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어요. 자연이 숨쉬고, 머물고 싶은, 함께하는 오조리마을을 적극 홍보하며, '기억에 남는 오조리, 기억하고 싶은 오조리'로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마을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고자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관·환경 우수 마을로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고기봉 (이장)
자연경관 보전과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 함께 애써온 마을주민들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를 지켜내려고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모든 주민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인심 좋은 마을로 거듭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찾고 싶은 마을, 살고 싶은 마을'이 되도록 오조리 주민들 모두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관자원을 활용한 힐링 공간을 만들어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농촌 치유 마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전 주민이 환경 전문가가 되어 환경마을로서의 위상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자연과 주민이 상생하는 아름다운 마을, 마을주민이 행복한 마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mini interview

마을사업성과



주민 인식 개선 및 기타 활동

- 2016** ▶ 제주올레 코스별 관리단체 활동 평가 장려단체 선정
▶ 주민교육 및 현장포럼을 통한 선진지 견학으로 마을 발전 사업 발굴
- 2017** ▶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특화역량강화 사업 최종 평가회 우수상 선정
- 2019** ▶ 2019년 자립마을 육성사업 평가 대상
- 2020** ▶ 오조리 어촌계 제주 바다 환경 대상
- 2022** ▶ 한라일보 환경대상, 환경부장관 표창
▶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햇빛 닿는 마을 복합센터 조성 및 방문객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오조리 연안 습지의 보전관리 실태 점검 및 올바른 습지 보전관리 정책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계속 사업** ▶ 체계적인 마을 홍보 마케팅을 실행해 마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마을 지도 제작 및 구축
▶ 마을가꾸기, 환경정비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 마을 주변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처리, 마을대청소, 농경문화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전개
▶ 생태관광 시스템 구축

경관환경 분야 활동 내역

내수면 환경정비

참여인원 : 50~60명 이상
주요활동 : 오조리 내수면
양식장 쓰레기 수거,
파래제거 작업

내수면 수질정화

참여인원 : -
주요활동 : 수질정화
나노버블 장치 가동

식산봉 환경정비

참여인원 : 60명 내외
주요활동 : 식산봉 오름
환경정비,
황근자생지 정비

마을 환경정비

참여인원 : 70~80명
주요활동 : 마을안길 예초
및 쓰레기 수거, 화단
가꾸기, 농로보수, 방역

제주올레, 지질트레일 정비

참여인원 : 60명내외
주요활동 : 제주올레
2코스, 성산-오조
지질트레일 코스 정비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사례집

농촌만들기 분야



04

농촌지역개발사업

마을 공동체의 참여와 역량이 만들어낸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
우리 농촌마을을 소개합니다.

금상 경남 김해시 진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04
은상 충북 제천시 수산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110
동상 충남 청양군 남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16
입선 세종시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22
입선 경북 청송군 현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28





사람과 길, 도자기로 문화가 이어지는 진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비음산(510m)과 대암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안 평지지대에 진례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례면은 우리나라 최대의 분청도자기 도예촌으로 김해도예협회와 54개의 도예공방이 보금자리로 삼고 있습니다.



'김해시 진례면'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현로 6
- 마을자원 진례문화발전소,
 (카페문화공감, 동아리실, 도예체험실),
 도자테마거리 조성(진례로구간, 도예촌구간)



진례면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진례문화발전소 1층 카페문화공간

진례면의 중심지 마을은 송정리이며, 배후마을은 청천리 외 9개의 행정리가 있습니다. 특히 반경 2km 범위 내에는 돈암마을, 강변마을 등 6개의 마을이 자리하고 있고 중심지까지 약 5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여 생활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진례면의 도예촌은 30~40대의 젊은 도예인이 중심이 되어 전통과 독자성을 살린 디자인을 바탕으로 분청도자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다양한 문화서비스 전달, 지역민 일자리 창출로 농촌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진례면의 중심지 거점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시설물은 진례문화발전소입니다. 저희와 같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한 다른 지역에 견학을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는 무엇을 적용시키면 좋을지 직접 보고, 수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총별 공간 용도와 프로그램

종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중심지 주민들은 물론 배후마을 주민들까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진례면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례문화발전소가 있습니다. 이전엔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진행하였지만 시설이 낙후하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례면의 문화공간이 생긴 이후로는 꾸준히 100여명의 회원이 쾌적한 우리의 공간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진례면은 주민의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 진례문화발전소 1층 카페문화공간



▲ 진례문화발전소 3층 도예체험실



▲ 도자테마거리 경로당 벽화

특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등 중심지 기능 강화

진례면은 특화자원인 분청도자기를 활용하여 지역민이 참여하는 도자 테마거리 조성 등으로 5년간 중심지 유동인구를 215%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점포 개수(8개소), 상가 리모델링(3개소), 전례5일장 가판대(33개소)를 늘려왔습니다. 이러한 마을의 발전을 거치며 사무장, 시니어환경미화원, 도예 전문 강사, 카페 바리스타 등 총 1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진례도자축제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 진례문화발전소는 연간 256%라는 큰 수치로 매출액이 성장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및 배후마을주민에게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

진례면은 지역주민은 물론 배후마을주민에게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농촌중심지이자 생활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풍물(18명), 점핑(15명), 탁구(20명), 물레(20명), 서예(10명), 바리스타(15명) 등 6개의 동아리에서 수많은 회원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초등바둑·라탄 공예·유아미술·물레 전문 강좌·단체 도자기 수업 및 원데이 클래스 등 7개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80명의 지역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10개의 배후마을 주민에게도 문화·복지, 농산물, 교육 등의 꾸러미와 다양한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운영조직체계 구성

진례면은 지속가능한 마을의 발전을 위해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운영조직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총괄 운영 관리를 위해 설립한 '진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운영 위원회 협동조합'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교육(23명)을 통한 '진례 카페 문화 공감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진례 문화 발전소 내에 카페 문화 공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지속적인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으로 2022년도에 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확보하였습니다.

“
세부적인 계획으로
속속 성장하는 마을
”



▲ 도자테마거리 타일벽화거리



▲ 진례문화발전소 2층 풍물동아리



▲ 진례문화발전소 1층 카페문화공감



TALK TALK

미니인터뷰



마을주민들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박명준 (담당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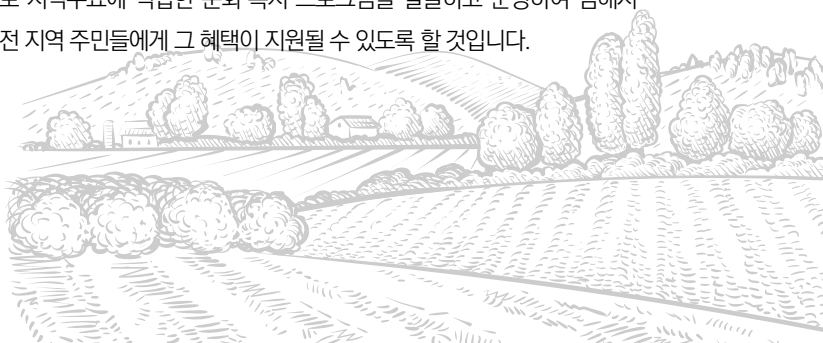
진례면의 특화자원인 분청도자기를 반영하여 지역주민과 각종단체들 간의 화합을 유도하였습니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이 사업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례면 소재지 현황과 분청도자기에 대한 지속적 설문조사 및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농촌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주민-행정-중간지원조직)이 잘되어 있었던 것도 한 몫 하였을 것입니다.



진례면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현경 (담당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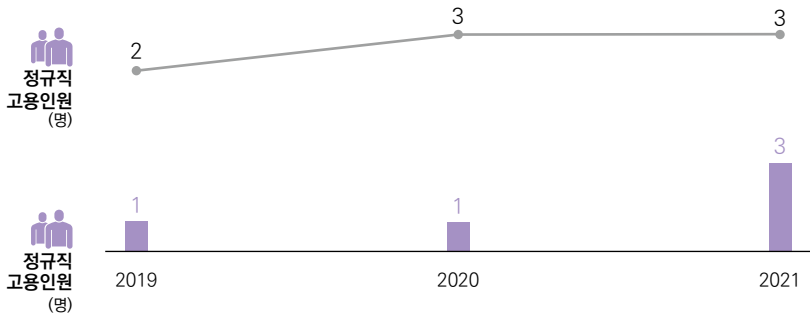
'사람과 길, 도자기로 문화가 이어지는 곳 진례면'을 농촌중심지의 중장기 발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문화발전소를 운영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예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도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후마을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서비스 혜택 전달을 목표로 세부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진례문화발전소 1층 카페에서 진례면 내 단감, 아로니아, 곡물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간식을 개발하고, 지역농산물꾸러미를 판매하며 배후마을에게도 이를 전달하여 취약계층과 배후마을 주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해시 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도예 문화강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직접 지역에 도예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같이 힘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여 김해시 전 지역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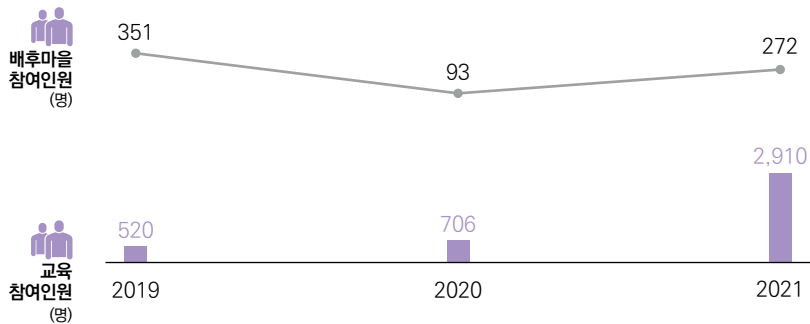
mini! interview

마을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수



교육 및 배후마을 주민 참여도



연계사업 추진 실적

2022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사업비 : 30백만원
 주관기관 : 김해시
 지역내 고령자, 다문화가정
 대상 도자기 관련 교육 지원

2022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사업비 : 10백만원
 주관기관 : 농어촌희망재단
 주민 문화·복지 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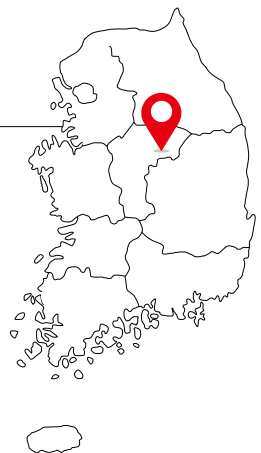


풍요로움과 힐링이 있는 슬로시티 수산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충북 유일의 슬로시티 지정 마을인 수산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지구는 제천시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 중심지 역할은 물론 다양한 시설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천시 수산면'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26길 36
- 마을자원 현복합커뮤니티센터, 야외공연장, 근린공원,
농촌현장활동가 육성, 마을영화카페,
문화 복지 프로그램 운영, 월간페스티벌 추진,
귀농귀촌체험프로그램 등



수산면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산책로

제천시 수산면은 옥순봉, 금수산, 능강계곡, 용담폭포, 정방사, 출렁다리, 자드락길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수산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상업·행정·문화·교육 등 주요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 중심지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에게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산면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문화배달부 및 농촌현장 활동가를 통해 스무 개의 배후마을에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소재지 주민뿐만 아니라 배후마을 주민들도 함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의 임시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도농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을 위해 어반스케치·도자기핸드페인팅·악기연주 프로

그램을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의 무형문화재인 오티별신제 '허재비 놀이'를 연극으로 만들어 주민과 함께 공연 준비를 하는 등 지역 문화의 고유성을 지키려는 노력도 더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시설물을 운영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금으로 주민을 위한 영화카페·월간페스티벌·건강진단 등 다양한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민 스스로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사업의 목적대로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층 성장한 주민들의 모습이 타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마을공동체 활동(진입로 경관개선)



▲ 달팽이와 영화관람 안내판



▲ 돌맹이커피

“
주민에게는 삶의 풍요로움을
방문객에게는 여유로움을
주는 마을
”

주민들의 소재지 발전 의지 강화

사업 준공 이후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이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단체(슬로시티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이장협의회·체육회 등) 협업을 통해 체험프로그램 연계 및 시설물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발굴하여 준공 이후 4년간 30여건, 총 14억 규모의 크고 작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 공간과 다양한 귀농·귀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준공 이후 소재지 유입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 슬로시티 마을공동체 개소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의 서비스 전달 체계

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복합 커뮤니티 센터 및 야외공연장 이용은 물론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배후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중심지로 배후마을의 주민 유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중심지에서도 배후마을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으로 구성된 슬로시티 마을공동체가 문화배달부를 운영하고, 농촌현장 활동가가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자원조사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배달부

차별화된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으로 구성된 산내리영농조합법인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주민을 위해 월간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영화카페, 돌커피 체험 등을 제공해 주민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인 ‘모듬 북 교실’이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슬로시티협의회가 주최하는 ‘슬로시티 수산 힐링축제’와 체육회 주관의 ‘한마음 체육대회’, 주민자치위원회의 ‘경로잔치’, 수산면민 한마당, ‘옥순봉 음악축제’ 등 지역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완로지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 수산면민한마음체육대회(16회)



TALK TALK

미니인터뷰



마을주민들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한 특별한 의미나 계기가 있나요?

피승희 (담당공무원)

수산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목적은 주민에게는 삶의 풍요로움을, 방문객들에게는 힐링과 여유로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준공 초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소재지 활성화와 방문객 위주로 신경을 써 코로나 이전 연 3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소재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업 목적인 '주민에게는 삶의 풍요로움'을 주자, 라는 다짐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지 운영법인과 기관단체, 수산면, 제천시,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서로 소통하며 오늘날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나요?

김택수 (법인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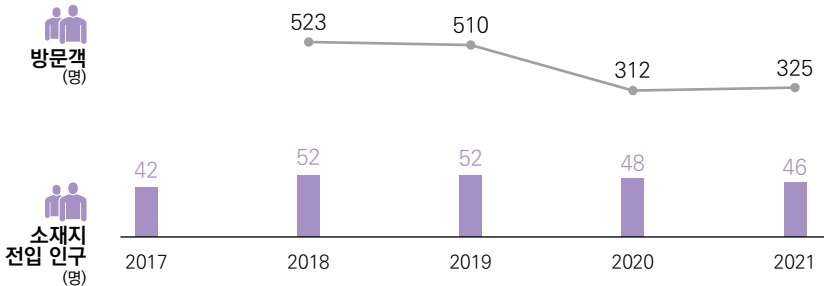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여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천시와 법인, 마을공동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제천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요금을 법인에게 지원할 예정이고, 법인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마을공동체에 지원하여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여 시설물 운영에 따른 수익 전액을 지역 사회에 환원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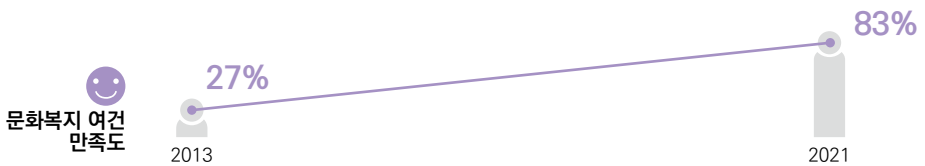


마을사업성과

교육 및 배후마을 주민 참여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연계사업 추진 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비	주관기관
2017~2018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300백만원	충청북도 마을 경관 개선
2020	수산면 소재지 소농지 조성사업	14백만원	제천시 시설물 주변 수목 식재
2021~2023	생태테마관광 육성공모사업	228백만원	문체부 생태자원과 관광프로그램 연계
2022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25백만원	행안부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2022	충북에서 살아보기	16백만원	충청북도 귀농귀촌 체험 지원
2022	도시민 유치 팸투어	20백만원	농식품부 안전재난건설과 귀농귀촌 체험 팸투어
2022	읍면동 특화사업	100백만원	제천시 소재지시설물 경관 개선
2022	수산근린공원 주민쉼터 조성사업	300백만원	제천시 산책로 및 방문객 쉼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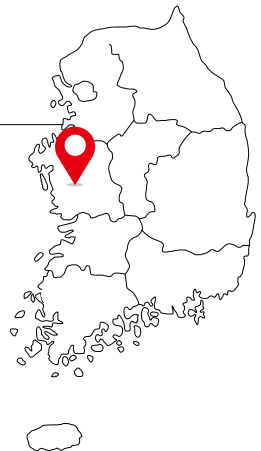
금빛 행복을 품은 광나는

남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남양면은 주민자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주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남양면의 옛 영광을 다시 불러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원이 담긴 '남양 행복 나눔터'는 남양면민의 문화와 공동체 활동의 장이 되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청양군 남양면'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만수로 1597-8
- 마을자원 빛나는 문화교실, 할매할배학교가자, 금빛남양가꾸기, 사랑나눔행사 등



남양면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주민강사가 배출되어 배후마을로 문화서비스 전달

청양군에 위치한 남양면은 한때 대한민국 최대의 금 생산지였습니다. 마을이 번성하여 당시 남양면 인구가 현재 청양군민보다 많은 인구였습니다. 그러나 1975년 폐광 이후 급격한 쇠퇴를 맞게 되었던 지역입니다. 이에 남양면 주민은 다시 한 번 마을의 영광을 불러오기 위해 이름을 사양면(斜陽面:지는 햇빛)에서 남양면(南陽面:남쪽의 해)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바꾼 후 본격적으로 주민주도형 지역활성화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남양면은 중심에 남양면 사무소와 '남양초등학교'가 있고, 인접한 곳에 '남양 행복 나눔터'를 조성하여 생활 SOC 집적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남양면의 거점 역할을 하는 '남양 행복 나눔터'는 공간 배치부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들이 회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공간이 생기며 기존 4개에 불과했던 남양면 공동체 프로그램 개수가 현재는 12개로 늘

어났습니다. 주민자치회와 결합하여 남양면 중심지는 물론 배후마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및 공동체 활성화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차후 농촌협약과 결합하여 통합 돌봄 서비스까지 구축하여서 남양면민 전녀노소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남양면에 젊은 사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마을의 활성화되고 난 후 지금은 어디에 가도 젊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젊은 주민이 많았더니, 하며 늘 놀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력 넘치는 남양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이와 어른 모두 행복한남양 행복나눔터



▲ 공동육아모임 코딱지 창의교실



▲ 센터명칭공모전

공간을 실사용할 주민이 직접 계획

남양면은 실제로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의 의견과 요구를 담아 공간을 계획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때부터 남양초의 젊은 학부모들을 운영위원으로 적극 영입하고 남양면에 필요한 공간 구성 및 자재 선정, 공사 방법까지 실사용할 주민들이 직접 꼼꼼히 체크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양면에 필요한 효율적인 공간은 만드는 것은 물론 예산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직접 나서서 해야지 일을 보다 완성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주민의 자신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준공된 시설물에서 경험하는 운영관리

남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기존 2020년 시설물 준공과 함께 역량 강화사업도 같이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주민이 운영관리해보는 경험 없이 바로 시설물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의 입찰차액과 주민이 직접 설계에 적극 참여하여 절약한 공사비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1년간 시설운영을 같이 하며 다양한 공모사업 연계 및 시설운영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다양한 기관·단체와 연대·협력하여 확보한 지속성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운영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결합하였습니다. 사무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확보하고 중심지활성화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양한 영역과 연대·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청(주민세를 활용한 주민자치 사업)을 비롯하여 중간지원조직(동아리 지원사업 '삼삼오오'), 교육청(마을학교), 충청남도(도민참여예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 및 공모하여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남녀노소 누구나
누리는 금빛 행복
”



▲ 주민주도 마을축제기획(남양면 문화의 밤)



▲ 교육청과 연계하여 마을학교운영



▲ 동아리 풍물



TALK TALK

미니인터뷰



운영위원장
이경우

중심지 거점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시설물은 무엇인가요?

이경우 (운영위원장)

남양면의 가장 중요한 거점기능을 하는 시설물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한 '남양 행복 나눔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양 행복 나눔터'를 통해 남양면 행정복지센터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남양면의 중요한 행정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양면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남양면의 미래, 학생들의 다양한 돌봄 및 마을 학교 프로그램으로 '남양초등학교'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민자치 역량을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의 역량을 떨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남양 행복 나눔터'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남양면민에 대한 문화, 공동체 활동에 대한 갈증이 한 번에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권오철 (담당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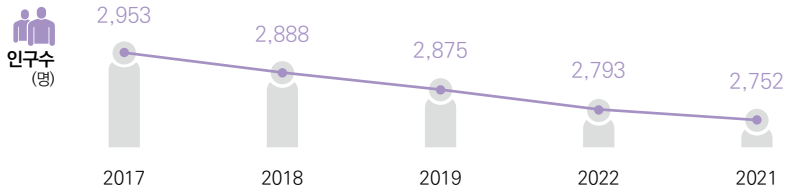
남양면은 주민자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입니다. 남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인해 다양한 공동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남양초등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면민들에게 큰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남양면민에게는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돌볼 줄 안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청양군은 이런 주민의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농촌협약사업을 통해 어르신뿐 아니라 학생까지 모두 돌봄 케어 할 수 있는 돌봄 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통합 돌봄 센터가 앞으로 젊은 주민이 더 많이 늘어나는 활력 있는 남양면, 청양군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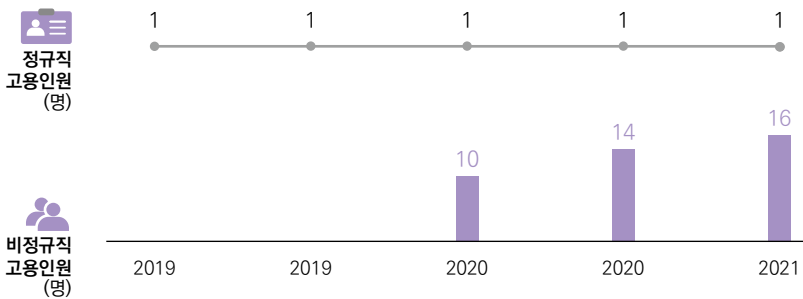


마을사업성과

지역 인구 감소 완화



일자리 창출 수



연계사업 추진 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비	주관기관
2020~2022	청양군 삼삼오동아리 지원사업	6백만원	청양군 코백지 창의학교 운영
2018	마을교육공동체사업	000	교육부 남양초 연계 마을학교 운영 사업
2022	주민참여예산사업	20백만원	청양군 생활공구 대여사업
2022	도민참여 제안사업	80백만원	충청남도 다양한 남양행복나눔터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사람이 아름다운 마을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에 위치하여 충남 천안시와 인접해 있는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지구는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배후마을에도 나누고 있습니다.

'세종시 전의면'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운주산로 1212
- 마을자원 청소년문화센터(꿈센터), 홍보관,
북암천변 데크길, 주민대학운영,
찾아가는 마을대학, 주민제안 공모사업,
골목길가꾸기 등



전의면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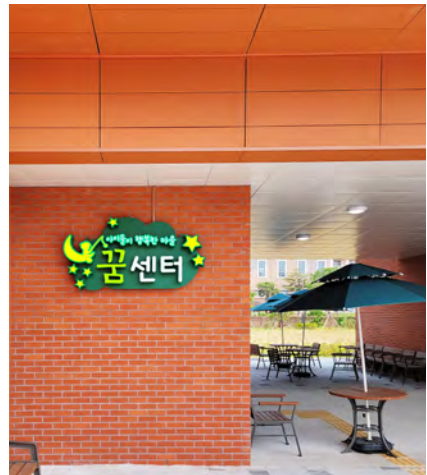
▲ 마을음악회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지구는 대규모 사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세종시 신도심과 달리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어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초고령 마을로 진입 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 하려는 방안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전의면의 중심지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전의 홍보관은 전의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알림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소소한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전의 홍보관은 전의의 중심인 전의역 앞에 자리하고 있어 오고가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휴식을 주는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위치한 덕에 마을음악회나 축제,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행사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전의가 궁금하

시면 전의 홍보관으로 오세요'라는 문구처럼 전의면의 홍보관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휴식공간이 되어 주는 전의 꿈 센터 역시 전의면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가끔 꿈 센터가 없었다면 저 아이들이 어디에서 저렇게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훗날 아이들이 이 공간의 주인이 되어 운영관리에도 참여하는 꿈을 꾀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중심지 지역과 배후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었고, 현재는 주민 스스로 자립하여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우수마을이 되었습니다.



▲ 꿈센터



▲ 꿈센터



▲ 홍보관을 방문한 유치원아이들

“
아이들은 꿈을 키우고
어른들은 하나 더
배우는 마을
”

문화배달부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운영

문화배달 서비스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 전의면은 마을교사를 발굴하고 양성합니다. 현재까지 지역주민 21명이 마을교사가 되었습니다. 양성된 전문 인력들은 문화배달부가 되어 문해와 공예, 미술, 역사, 도자기, 마을해설, 로컬요리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활약합니다. 또한 문화배달부가 20개의 배후마을에 '찾아가는 마을대학'으로 총 3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는 배후마을 주민은 785명에 달합니다.



▲ 찾아가는 마을대학

다양한 주민 동아리·공동체 조직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

농촌중심지 신문편집위원회 운영으로 마을신문을 현재 49호까지 발행하였습니다. 이를 33개 행정리에 배포하였으며 중심지 주요거점인 면사무소·전의역·농협·신협 등에 비치하였습니다. 출항인사도 우편 발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골목문화축제와 골목길 가꾸기, 마을장터, 색소폰 버스킹 등 배후마을 주민을 포함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외 주민제안공모사업단과 문화동아리, 마을교육공동체 등 다양한 주민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골목가꾸기작업

농촌중심지 거점시설 운영을 위한 마을상품 및 연계사업

사람이 아름다운 마을, 전의면은 다방면에서 노력하는 마을입니다. 배후지역에 문화배달부를 차처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동아리와 공동체 조직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상품도 개발하여 판매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커피콩 드립백과 천연비누, 수제청음료 등이 있습니다. 행안부의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종시 교육청과 평생교육증흥원,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연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골목축제



TALK TALK

미니인터뷰



운영위원장
방용택

중심지 거점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시설물은 무엇인가요?

방용택 (운영위원장)

전의면의 중심지 거점 역할은 전의 홍보관과 꿈 센터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준공되어 실내공사와 무장애시설인증까지 마친 후 올해 3월부터 운영이 시작된 전의청소년문화센터는 이름공모전을 거쳐 '아이들이 행복한 꿈센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2020년 시작된 건축공사 도중 지역 관아 터로 추정되는 유적지와 도자기 등 유물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지되기도 했었고, 유적지를 보전하기 위해 건축설계변경까지 감수하며 주민들의 뜻을 펼치는 데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감독관, 운영위원, 세종시청이 협조하여 성공적인 준공식을 거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성인 교육프로그램과 견학·행사·강의·캠친 등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과 1~2년 전에는 선진지 사례를 접하기 위해 저희가 견학을 갔다면 현재는 전의의 사계를 배우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천영옥 (전의사협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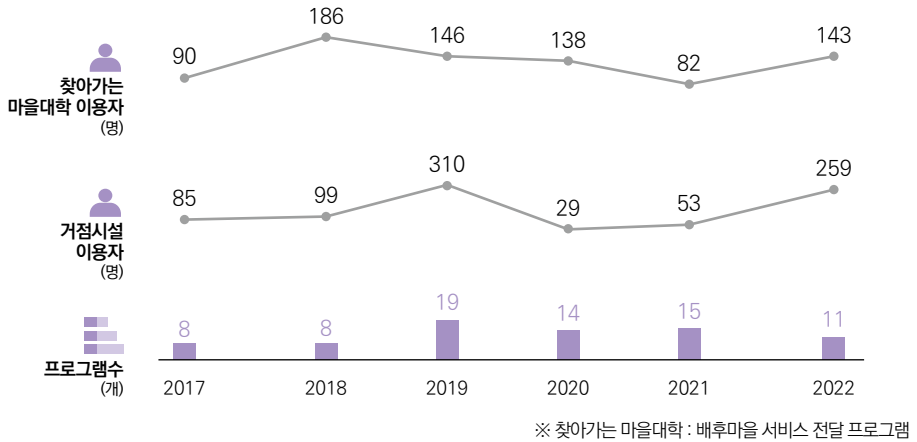
전의면은 문화배달부인 마을교사를 양성하여 배후마을로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위주로 마을교사를 발굴·양성하여 현재 많은 문화배달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어 문화배달부를 접하는 배후마을의 호응이 좋습니다. 전의면은 배후마을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인 농촌중심지활성화 법인으로 전의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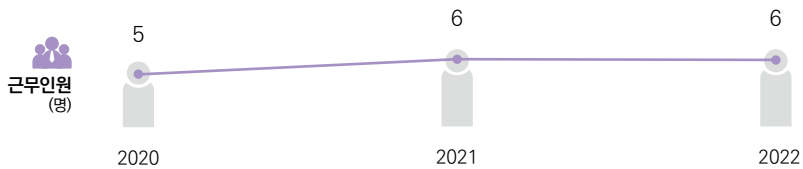


마을사업성과

외부 유입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수



연계사업 추진 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비	주관기관	추진 실적
21.9.~21.12.	마을기업 육성사업	96백만원	행정안전부	마을특산물 개발 및 마을문화 예술사업
22.4.~12	꿈이 자라는 마을학교	10백만원	세종시 교육청	전의 초·중학생 대상 교과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27회)
22.5.~10.	세종 글꽃서당	6백만원	평생교육진흥원	전의문화교실 운영(30회)
22.7.~10.	놀이탐구단	7백만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의 초·중학생 대상 놀이프로그램 운영(13회)





오미가미 모두 모여 함박웃음 피어나는 현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지구는 익산~포항간 고속도로를 따라 북영천 IC로부터 청송군으로 진입하는 관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읍·면에서의 접근성이 우수한 교통요충지입니다.

'청송군 현서면'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 100-14
- 마을자원 현서면 목욕탕, 청송사과테마공원 주차장,
화목장터, 어린이 이야기길,
난타동아리 운영, 풍물동아리 운영,
화목장터 별빛영화관



현서면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풍물동아리(사과축제)

현서면의 세 가지 자원 중 첫 번째 자원인 화목장터는 현재까지도 정기시장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청송지역 3·1운동 중 가장 격렬했던 역사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현서면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현서면 남서부 산지에서 발원된 길안천의 자연자원입니다. 길안천은 주민에게 아름다운 친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원은 이오덕 문학가라는 인적자원입니다. 주민들의 문학적 정서함양을 도와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정서를 회복하여 정신적 건강과 육체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서면은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구산리를 중심으로 문화·복지, 의료·보건 등의 생활복지 서비스를 배후마을 주민들에게도 제공하며 생활 SOC를 구축한 지구입니다. 또한 복지배달서비스를 통해 중심지와 열다섯 개의 배후마을에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

업을 진행하며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되어 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민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많은 문화·복지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는 사업 하나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정 많은 주민들이 모여 타 부처 연계사업이나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접근합니다. 중심지 주민뿐 아니라 배후마을 주민들과 혜택을 함께 즐기고, 정보교류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강화할 계획입니다.



▲ 화목시장(공연장)



▲ 현서면 길안천 심터 길정비 후



▲ 이불 빨래방(복지배달서비스)

주민 여가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문화프로그램

예전에는 영화를 보거나 문화프로그램을 듣기 위해 청송읍 또는 인근 시로 이동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별빛 영화관의 영화상영과 현서 체육관에서 주 2회 활동하는 난타동아리, 이오덕 문학축제 및 사과축제 때마다 열리는 풍물동아리로 현서면에서 문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서면은 다른 지역과 달리 특화 대상을 설정하여 집중적이고 우수한 문화강좌를 엮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 선택지와 여가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움직이는 복지배달서비스

배후마을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강 위원회가 복지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의 이불 빨래, 건강 체크(혈압·당뇨) 등의 복지 배달 활동은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월 1회로 진행되는 ‘때 빼고 광내는 날’에는 목욕탕에서 목욕도 하시고, 찾아가는 이발봉사 서비스가 있어 이발까지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위생 및 건강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이 서비스들을 받기 위해 인근 지역 분들까지 많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정비

전통시장 정비(구 장옥철거·불법건축물 철거)를 통해 시장 주변의 복잡하고 지저분한 공간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 후 마을주민 및 손님들에게 깨끗한 시장이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장날을 찾는 손님들이 매주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으로 시장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여 주민·상인이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2023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시장 활성화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더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
모범사례가 되는
역량과 의지의 마을
”



▲ 별빛 영화관 행사



▲ 때 빼고 광내는 날



▲ 화목시장



TALK TALK

미니인터뷰



화목2리 이장
오창록

현서면의 대표적인 문화복지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오창록 (화목2리 이장)

별빛 영화관과 난타 동아리가 특히 주민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와 취약계층이 하기 힘든 이불빨래 등을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수거하고 건조까지 마친 후 다시 자택으로 배달해주는 빨래방 서비스도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인근 읍면에서 신규의뢰가 들어올 정도입니다. 건강지킴이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다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부듯하고, 동네 여러 이장님들과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택침수 피해가 있었던 2021년 태풍 '오마이ς' 때에는 이불 및 의류 세탁을 진행하였었는데 호응이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피해자에 한해 의류 세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한 특별한 의미나 계기가 있나요?

김채정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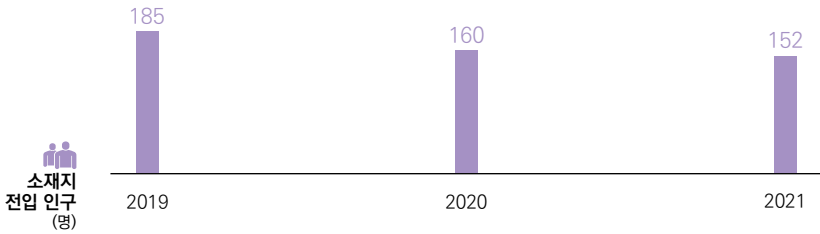
현서면은 주민공동체 활동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사업을 정착화 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는 타 읍면에까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는 명처럼 현서면이 다양한 생활 SOC를 구축하고, 활성화되어 행복한 마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추후의 모든 일은 주민들의 역량과 의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배후마을의 주민들이 합심하여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이룬 현서면이 농촌지역개발분야의 우수사례가 되어 타 시군까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공유하게 되었으면 했습니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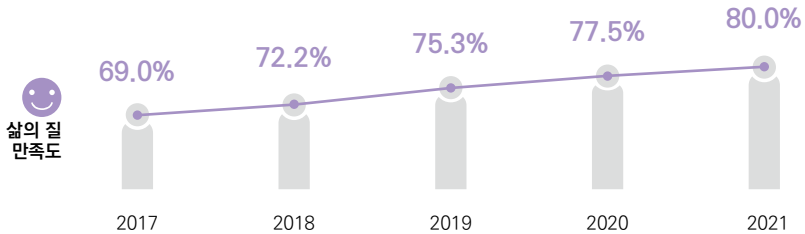
마을사업성과

외부 유입 인구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2021년도 방문 연기 및 취소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연계사업 추진 실적

2020~

건강마을 조성사업

사업비 : 175백만원
주관기관 : 청송군 보건의료원
건강마을 프로그램,
이불빨래방 운영

2020~2024

덕계리 마을만들기 사업

사업비 : 1,000백만원
주관기관 : 청송군
안전재난건설과
마을문화관 조성, 문학관
주변 · 마을안길 정비 등

2022

이오덕 동화거리 콘텐츠 및 프로그램

사업비 : 215백만원
주관기관 : 청송군 문화체육과
이오덕 문학 아카데미 · 동아리
문학해설사 양성, 동화거리
페스티벌

2019~21

이오덕 문학축제 지원사업

사업비 : 11백만원
주관기관 : 청송군 문화체육과
이오덕 문학축제 위원회
이오덕 문학축제 개최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사례집

농촌만들기 분야



05

농촌 빈집·유희시설 활용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빈집·유희시설을 성공적으로 리모델링한
우리 농촌마을을 소개합니다.

- 금상 | 충북 청주시 미원면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 126
- 은상 | 전남 해남군 북일면 빈집활용 142
- 동상 | 전북 부안군 우덕기록문화관 148
- 입선 | 전북 완주군 그림책공감 154
- 입선 | 경북 김천시 김천시니어클럽 청노을식품 160



유류시설
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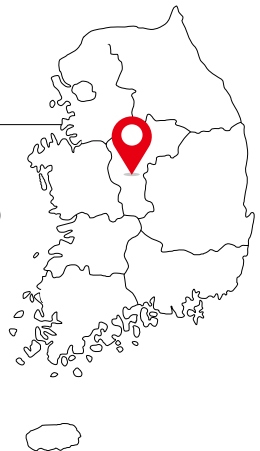
문화와 교육의 꿈을 열어주는

충북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

청주시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미원면에는 문화와 교육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이전하며 방치되었었던 시설이 주민의 교육·문화 장소로 탈바꿈하였습니다.

●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를 소개합니다.

마을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시내2길 36
인구수(가구)	4,852명(2,854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2,091명)
마을자원	지역특산품 : 쌀, 사과 인접관광지 : 옥화9경, 미동산수목원



동청주농촌 교육문화센터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

2016년 '다시 미원. 그러니까 마을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범한 교육공동체와 함께 시작된 주민들의 모임은 활발하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나 다 같이 모일 장소가 없었습니다. 장소 문제를 고민하던 중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던 현 시설을 찾게 되었습니다. 농협과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이 시설을 직접 수리하고, 다시 페인트를 칠하여 지금의 교육 장소로 탈바꿈하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이후에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방육성사업'을 통하여 교육 장소로서의 리모델링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유지관리와 교육·문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는 소득사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도움을 받아 100% 국내산(지역농산물)으로 만드는 '미원산골마을빵'이 우리 마을의 소득사업입니다.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는 교육과 소득사업을 위한 법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현재 9개의 동아리와 '마을카페 잇다', '미원산골마을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 시설이 미원면에 한정되어 있지만 센터 이름에 '동청주'를 붙이면서 꿈꿨던 것처럼 인근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미원면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 주민들까지 이 공간을 활용하여 모두가 즐거운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시설이 문화·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촌마을도 유희시설을 활용해 문화·예술·교육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되어 더 많은 농촌마을에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 마을카페잇다(1층)



▲ 미원산골마을빵 수상



▲ 노래하는 창작어린이노래단

“
함께 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공간의 의미를 키워가요.
”

남녀노소 모두에게 문화·교육의 기회 부여

미원면은 문화·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촌지역이나 현재까지 약 4,000명이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에서 동아리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상시 동아리로는 미원어린이 창작노래단, 춤 테라피, 목공교실, 시니어인지아카데미, 분재동아리, 캘리그라피, 독서동아리, 프랑스자수, 마을교육네트워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문화·교육의 기회를 주민들에게 드리기 위해 시기별로도 미원어린이 날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 인문학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독서동아리

유지관리와 주민 쉼터로 활용되는 소득사업 운영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소득사업으로 100%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것에 강점을 둔 '미원산골마을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 및 방송사에 소개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민 쉼터 및 사랑방 역할을 하는 '카페 잇다'도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장소로 제공되어 휴식과 소통의 장소로 활발히 활용됩니다. 이와 같은 지역주민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서는 현재까지 17명의 일자리를 창출 효과를 거두었고, 지속적으로 주민 참여의 기회를 늘리고 있습니다.



▲ 마을카페잇다(1층)

문화·교육 제공과 함께 이루어지는 지역의 활성화

주민에게 문화·교육의 장이 되고 있는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의 활약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는 청주시 농촌협약 역시 미원면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연계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것이며 지역 전반의 활성화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만드는 '미원산골마을빵'이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농산물 판매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어 이 또한 지역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입니다.



▲ 우리밀수확체험행사



TALK TALK

미니인터뷰



법인대표
김희상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김희상 (법인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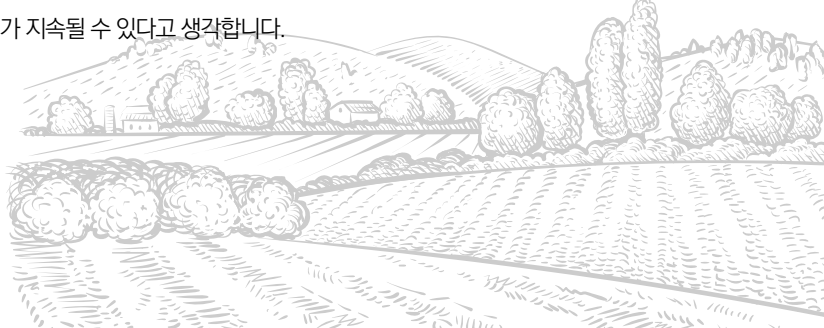
처음에는 단순히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만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를 개소했을 때 우리의 공간이 생긴 것이 무엇보다 기뻛고, 주민들이 장소 걱정 없이 마음껏 모여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단순히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실용성 있게 활용하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활동하는 경험 등이 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시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지금은 저희 시설이 문화·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촌마을도 유휴시설을 활용해 문화·예술·교육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가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끼기도 해요. 우리의 사례가 주춧돌이 되어 더 많은 농촌마을이 문화를 누리고, 폭넓은 교육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처럼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꿈꾸는 마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김희상 (법인대표)

처음 시작하게 된 마음과 절실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심을 잃게 되면 목표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활용하려고 했던 공간은 또다시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공간이 만들어져도 운영해나가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공간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만 마음에 잘 새기고 있다면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ini interview



시설활용현황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 시설

1층

카페 잇다

카페 및 주민모임장소

1교육장

동아리 활동(입식)

2교육장

동아리 활동(좌식)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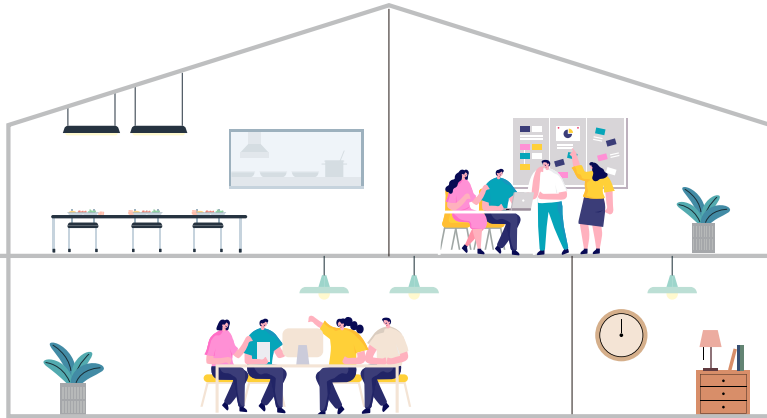
사무공간

식당

주방 및 식당실

화장실

화장실



지하 1층

교육장

동아리 및 회의
빔프로젝터 설치

소독실

제빵 작업자 소독실

제빵작업장

미원산골마을빵 작업장

재료보관실

빵재료 보관실





유휴시설

은상

새로운 이웃을 만들고 사랑을 더해가는

전남 해남군 북일면 빈집활용

땅끝마을 해남에 위치한 북일면은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깊은 애정으로 나날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마을입니다.

초등학교의 학생을 증원하기 위하여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하는 등 신선한 마을 가꾸기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일면 빈집활용'을 소개합니다.

마을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20개 자연부락)

인구수(가구) 2,000명

마을자원 절임배추, 고구마, 낙지, 바지락



북일면 빈집활용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4학년이 한명도 없었는데 8명이나 되었어요!

개교이래 졸업생 10,000여명을 배출해낸 '북일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폐교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봄, 신평호 님을 회장으로 추대하여 북일면 주민자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학교 살리기 사업을 제1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1년간 '북일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중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전남북과 광주 외 전국을 대상으로 젊은 학부모들을 모시는 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폐교 직전의 상황에서 2022년 8월까지 학생 수를 63명으로 늘렸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유치원 아동 수도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2021년부터 북일면 주민자치회 중심의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단순히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지역 북일면도 같이 살리고자 하는 희망까지 담고 있습니다. 북일면

은 이 외에도 전통시장 살리기 등 마을 가꾸기를 주민의 적극적인 의지로 진행해왔습니다. 빈집 수리를 통해 외부 젊은 학부모들을 성공적으로 정주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은 인구수가 아주 적은 농촌마을에도 언젠가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라질 뻔했던 북일면의 전통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보존한 것도 농촌 마을의 저력을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하여 우리 마을의 자부심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지자체와 단체에서 학교 혹은 시장 살리기의 모델로 북일면을 선택하여 우리의 사례를 공부하려고 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 21.11.03 학생모심 행사(북일초)



▲ 좌일시장



▲ 22.11.09 서울시청 행사

빈집 20가구 수리 및 입주 추진

사업 초기단계에서 조사를 통해 북일면의 빈집 50여 채를 확인하였습니다. 일일이 빈집 주인들을 설득하여 고쳐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게 된 가구 수는 20가구였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으로는 부족하여 각종 동창회와 향우회 그리고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후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폐가로 방치된 집들은 수리를 통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더불어 타 지역에서 이주한 학부모들에게는 일자리를 함께 주선하여 지역민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을에 대한 입주민들의 애정

북일면은 원주민 뿐 아니라 새로 입주한 분들도 마을 가꾸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방치되고 있던 마을 부녀회관을 자비로 고쳐서 보드게임카페로 개장하여 마을의 오락거리를 만들어주는가 하면 마을 전통시장이 쇠퇴하여 주차장화 되는 것을 보고 시장을 살려보고자 힘썼습니다. 입주민들의 노력 끝에 전통시장은 다시 많은 상인들이 다양한 상품을 팔고, 이를 구매하기 위해 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북적이는 활기찬 모습이 되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희망찬 농촌

지역소멸을 수시로 듣는 농촌에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 빈집 활용 및 학교·시장 살리기 활동들이 외부에 많이 알려져 북일면이 더욱더 활기찬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사례가 널리 홍보되어 다른 농촌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이 여러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뜻이 모여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북일면이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비어있는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으며
함께 살아야
”



▲ 방산길24 지붕보수페인트공사 중



▲ 좌일시장



▲ 주민한마당



TALK TALK

미니인터뷰



마을주민들

마을 주민이 보는 마을 사업은 어떠했나요?

김효순 (주민)

저는 어렸을 때 '북일초등학교'에 다녔고, 졸업까지 했어요. 폐교 될 위험에 처해 없어질 뻔했던 모교가 그대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제 유년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그대로 선물 받게 된 것 같아요. 또한 폐가로만 보였던 북일면의 비어있는 농가 주택들이 이렇게 수리가 되어 좋은 일에 쓰일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마을에 다시 활기가 생기면서 북일면의 주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마을과 주민들이 참으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입주민이 된 소감을 말해주세요.

김수애 (입주민)

이전에 살던 지역에서 자리 잡으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었어요. 무한 경쟁에 시달리는 생활에 지쳐갈 즈음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겠다는 다짐이 섰어요. 먼저 심신이 지친 나를 되찾고, 아이들에게도 안정적인 일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북일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니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주하는 동안 자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마을 인심도 좋아서 지금은 참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 교육 측면에서 오기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을을 위해 함께 힘쓰고, 서로에게 다정한 이웃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mini interview



시설활용현황

활용 효과



성공적인 입주민 정착

신규 학부모 및 학생 20가구 76명 전입
 〈해남 읍면 중 유일하게 인구 증가〉
 전입자 전원광주전남외 타지역 출신으로
 일시적 농촌 유학이 아닌 평생 정착 가구



전입 주민일자리연계

해남 고용플러스센터 및 해남군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전입 주민 전원 취업



입주민이 함께하는 복일면 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 8명
 자발적으로 마을잔치
 개최, 부녀회관리모델링등 마을
 공동체활동에
 적극 참여 〈원주민과 화합〉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 활성화

2022년 신규 전학생 총 55명
 복일면 학생들은 은종일 돌봄 시스템으로
 구축한 주민 공동체 안에서 안전한 학교
 생활 영위 중

추진실적

운영 주체 조직화

2021.04.22.
 주민자치회 출범
 2021.05.-06.
 주민자치회 분과원 모집
 2021.07.28.
 작은학교살리기 홍보팀 구성
 2021.10.15.
 민-관-학 추진위원회 구성

MOU 및 자매결연

MOU체결
 전남도교육청, 해남군청
 해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해남 공공 도서관
자매결연
 완주군고산면
 도봉구청5동

사업 홍보 활동

중앙지 보도 300여회
 지방지 보도 500여회
 블로그 등 SNS 111만회
 지상파 보도 200여회
 케이블 보도 100여회
 JTBC 저녁 메인 뉴스
 김현정 뉴스쇼 출연
 KBS 뉴스 출연
 독일 슈피겔지 인터뷰

기타 실적

(2021.12.27.)
 전남도교육감과 대화
 (2021.12.30.)
 전남도지사 표창
 LH 공공 임대주택 간담회
 20세대 조정 협의
 좌일5일시장 플리마켓





역사를 보존하고 추억을 쌓아가는 전북 부안군 우덕기록문화관

넉넉할 우(優), 덕 덕(德)을 쓰는 우덕마을은 이름처럼 넉넉한 덕이 있는 마을입니다. 예로부터 넉넉한 인심을 자랑하는 마을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삶의 가치를 계승하여 베푸는 마을이라는 것이 우덕마을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우덕기록문화관'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가오길 20
- 인구수(가구) 69명(41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41명)
- 마을자원 농특산물 : 참동진 벼, 오색미, 양파, 마늘, 고추,
 역사문화 : 우덕기록문화관에 보관된 다수의
 기록물 100여점, 고인돌 5기



우덕기록문화관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우덕마을 전경

1961년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에 지어져 34년간 주민들의 쉼터 및 경로당이 되었던 본 건물은 몇 번의 재단장을 거쳤습니다. 1995년 새로운 마을회관으로 신축된 후 2005년까지 마을도서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약 15년간 빈 창고로 방치되어 있다가 2021년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사업 및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금의 우덕기록문화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유휴시설이었던 공간을 기록문화관으로 탈바꿈하며 마을 내 보관되어 있던 역사적 의미 및 기록·보전적 가치가 있는 공동체·개인의 자료를 수집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보전과 함께 전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마을의 보석 같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벚꽃이 피어 있는 봄에는 부안군 사진협회 작가들과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으로 '봄맞이 우덕마을

사진축제'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주민과 방문객들이 옛날 교복을 입고 즐거운 한 때를 보내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또한 천연생활용품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간 농산물을 키우고 관리했던 주민들이 새로운 재료들을 손으로 만지고, 새로운 결과물을 내어 놓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2021년 10월 준공 이후로 지금까지 상시 운영되며 근대문화 유산의 근거가 될 다양한 마을기록물을 보존하고 마을주민과 추진위원회의 회의,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교육장 그리고 지역 단체·주민들의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우덕기록문화관은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우덕마을의 역사가 함께 하는 뜻 깊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 우덕기록문화관 현판식



▲ 벚꽃사진축제



▲ 우덕기록문화관의 예전모습

“
 넉넉한 덕이 있는
 따뜻한 마을
 ”

마을공동체 및 주민의 근·현대 민간기록물 수집 및 전시

우덕기록문화관은 우덕마을과 우덕마을 주민의 역사,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의 근거가 될 다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록물들을 전시하며 주민과 출향민, 지역민, 방문객들과 마을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층의 우덕기록문화관은 고즈넉하고 아담한 우덕마을의 정취와 보기 좋게 어우러집니다. 사진으로 남아있는 우덕기록문화관의 예전 모습처럼 2022년의 우덕마을의 시간도 이러한 기록으로 오랫동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 벚꽃사진축제 주민들

시설활용을 통한 마을 정체성 및 공동체성 확립

1961년에 지어져 여러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던 이 공간은 2006년부터 15년간 빈 창고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2021년 지금의 우덕기록문화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공간을 의미 있게 쓰는 것과 더불어 우덕기록문화관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마을 정체성이 확립되었습니다. 유휴시설활용에 대한 주민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었고, 문화활동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추진력으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문화·복지 프로그램 및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 천연생활용품 만들기 교육

농촌 경관과 마을 기록을 테마로 한 마을 브랜딩

우덕마을은 농·특산물로 참동진 벼와 양파 농사 등을 짓고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값진 하루하루가 모여 주민의 역사가 되고 마을의 역사가 됩니다. 기록문화관이 있기에 이러한 발자취들을 분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마을 아카이빙과 기록물의 디지털화 단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전문적인 마을기록관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우덕마을만의 독특한 문화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시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덕기록문화관이 관람의 공간과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우덕마을 최고령최연소의 만남



TALK TALK

미니인터뷰



마을사무장
박후진

마을 만들기를 통해 주민들이 달라진 것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박후진 (마을사무장)

우덕기록문화관 조성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 추억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의 마을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마을을 떠난 출향민들 또한 마을의 변화와 발전에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우리 마을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고취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을뿐 아니라 지역 내 다른 마을에서도 사라질 위기에 놓인 근·현대 민간기록물 수집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례가 되어 영향력을 미치게끔 노력합니다. 출향민 및 시니어들이 살아보고 싶은 마을로 거듭나 더 많은 마을과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휴식을 제공하는, 살아보고 싶은 마을을 꿈꿉니다.

마을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김형섭 (추진위원장)

우덕마을은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도 항상 배움을 중요시하여 마을 내에 직접 서당을 만들어 자녀들을 가르쳤던,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마을입니다. 마을 내 초등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마을 부지를 희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움이 바탕이 되어 마을 이름처럼 넉넉한 덕을 베풀 줄 아는 마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환경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배움을 기반으로 넉넉한 덕, 넉넉한 인심을 베푸는 마을. 이것이 우리 우덕마을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mini! interview



시설활용현황



우덕기록문화관 - 우리의 기록은 여전히 진행중



마을의 오래되고 방치된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일단 고치고 보자'는
주민들의 의견으로
재생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공간의 재생과정에서 발견된
근 현대사 유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이런
유물들도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발자취와 기억들을
사진과 물건을 통해 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게 하려 했습니다.



폐허로 방치되던 경로당은
우덕마을의 역사와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누구나 찾아오는 소중한 공간으로
재 탄생했습니다.



마을 기록관을 만든 것처럼
하나씩 바뀌어 가다 보면
함께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기면서
우리마을 열마를 할 것 없이
조금씩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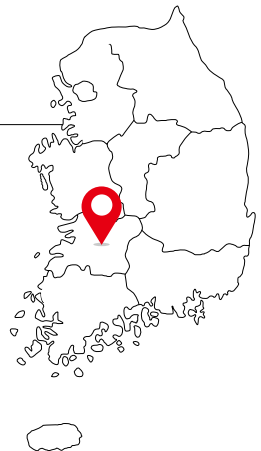
유휴시설
* **입선** *

그림책으로 하는 소통과 치유 전북 완주군 그림책공감

'그림책 공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은 완주군 소양면 원대흥길 121에 위치합니다. 닥나무와 위봉폭포, 오성한옥마을 등의 지역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흥마을은 그림책이라는 콘텐츠를 더하여 문화가 함께 하는 마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공감'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원대흥길 121
- 인구수(가구) 150명(67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60명)
- 마을자원 닥나무 한지공장, 목공 공방, 송광사와 위봉사
위봉폭포, 오성한옥마을 위치원



그림책공감의 성공비법



▲ 전시회

‘그림책 공감’의 공간은 2016년 전북형 슬로우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을 짬질방과 마을 주민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미활용 되었습니다. 방치되었던 공간이 2021년 마을로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지닌 청년활동가(*공감독서회)를 유입하여 그림책 교육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후 마을과의 협업체계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책 공감’은 소양면 대흥마을의 송광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이끌고 있는 ‘공감독서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회장 외 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감독서회’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그림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생부터 성인까지

폭넓게 잡았던 그림책 만들기가 대표적입니다. 학교나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다채로운 활동으로 그림책을 통한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림책 공감’이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향후 이 공간을 그림책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교육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림책 활동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림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그림책공감 내부



▲ 그림책공감 외부



▲ 그림책마을 활동가 양성 수업

“
그림책으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거점이
되고 싶어요.
”

일상에서 그림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은 초·중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총 4회의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주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정서적 지지 및 치유의 시간을 함께 가졌었습니다. 제작 과정을 통해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힘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한편 그림책으로 재능 나눔을 실현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과 1:1 멘토링이 있었고, 오성한옥마을에서는 힐링 나들이 프로그램 <내 안의 나무>가 진행되었습니다.



▲ 숲속텐트 그림책작가 전시

문화거점 시설로 활용하며 지역에서의 다양한 연계 활동

대흥마을은 '그림책 공간'을 문화거점 시설로 활용하며 다양한 연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소양초·중학교 학생들과 마을 어르신들 30여 명이 함께 합동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봄에는 소양 문화생태숲 <한국, 그림책 작가 5인을 만나다> 북큐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소양면 행복복지센터 아트프린트전 <수박이 먹고 싶으면>, 가을에는 소양면 교육문화그림책지원센터 아트프린트전 <알바트로스의 꿈>이 열렸습니다.



▲ 주민작품전시회

지속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그림책 만드는 과정을 지역주민들에게 먼저 선보이며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켰던 것처럼 '그림책 공감'의 지속적인 운영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교육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을의 유휴시설 공간을 활용하는 데에도 공간의 의미가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림책 공감'은 앞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림책읽어주기 봉사

미니인터뷰

mini interview



'그림책 공감' 대표 박미경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한 특별한 의미나 계기가 있나요?

송지은 ('그림책 공감' 총무)

'그림책 공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혼자 그림책을 읽고, 느낀 것에 대해서도 혼자 생각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보니 나만의 세상에만 머무르는 것 같았죠. '그림책 공감'이 만들어진 후에는 혼자 하는 것으로 그쳤던 그림책 읽기를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고, 감상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함께한다는 데에 감사함을 크게 느껴요. '그림책 공감'이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여 우리 대흥마을뿐 아니라 다른 마을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모두가 그림책으로 위로받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시설을 활용하여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박미경 ('그림책 공감' 대표)

'그림책 공간'이 그림책으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거점이 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림책 마을 활동가 양성과정도 저희 마을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전주와 임실 주민들도 참여하게 했습니다. '책마을해리'의 이대건 대표님과 같이하는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도 모집단위를 저희 마을로 한정 짓지 않고 전북을 그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책이 있는 작은 책방을 운영하여 지역의 아이들과 부모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소양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역자연에 그림책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더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시설활용현황

지역연계 추진실적 및 성과

그림책 큐레이션

소양면 문화생태숲 북큐레이션
 프로그램명 : 한국 그림책작가 5인을 만나다
 사업 기간 : 2021. 5. 29. ~ 7. 11.
 장소 : 소양면 오성한옥마을

그림책 아트프린트전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작은 미술관
 프로그램명 : 수박이 먹고 싶으면
 사업 기간 : 2021. 8. 23. ~ 9. 24.
 장소 :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

그림책 작가 및 강사 초대전

권윤덕/노미숙/신유미 작가 초대전
 권윤덕 : '나의 작은 화판 이야기' 2021.03.21.
 노미숙 : '그림책, 공감하고 소통하다' 2021.09.07.
 신유미 : '그림책 콘서트, 알바트로스트 꿈' 2021.10.30.

그림책 재능 나눔

그림책 나들이/힐링나들이 '내 안에 나무' 프로그램 진행
 지역의 학교, 마을회관,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가
 그림책으로 지역과 협력 및 소통 / 오성한옥마을
 힐링나들이 지역행사에 그림책 체험부스 운영

주민작품 전시회

주민들의 열정,
 감동으로 전시되다
 2021.12.13.~17.



향후 활용 운영계획

2022.6~10월

그림책교육지도사수업

그림책 마을 활동가 양성

2022.7~11월

영상미디어 활동

공동체의
여러 문화활동을
휴먼다큐로 제작

2022.8~11월

그림책 학교운영

2022.8~12월

만들기사업

전북 생생 마을
'우리마을 이야기'
그림책 제작

2022.9~12월

문화프로그램

그림책 큐레이션과
문화프로그램 진행

22.10월~23.02월

멘토링

그림책 1 : 1 멘토링

22.12월~23.02월

프로젝트

농한기와 겨울방학을
활용한 그림책
세대공감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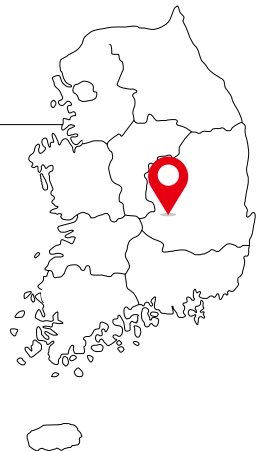


일하는 기쁨을 오래도록 나누는 경북 김천시니어클럽 청노을

'김천시니어클럽 청노을'은 경북 김천시 옥산리 모산마을에 위치한 김천시역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장입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일터가 되어주고 있고, 향후에는 농촌의 경기 활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자 합니다.

'김천시니어클럽 청노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위치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석정길 141-22
- 인구수(가구) 3,078명(1,715가구)
- 마을자원 간식용 누룽지, 건강음료 등,
김천혁신도시(12개 공공기관 이전)



김천시니어클럽 청노을의 성공비법



▲ (활용전)농촌유휴시설 모산달코미희망체험관

기존의 '모산 달코미 희망 체험관'은 2012년 행정안전부 사업공모를 통해 모산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조성되었지만 운영주체인 희망마을 운영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시설운영이 되지 않고 유휴시설 건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2020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사업비로 HACCP 인증 기준에 맞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새 단장하였습니다. 방치되었던 체험관은 지역 어르신들이 지역 특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장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두부·효소·고추장·떡 제조시설로 계획되었던 공간이 누룽지 대량생산 설비를 갖춘 주전부리용 누룽지 제조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가족 중심 체험장도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 체험 등을 진행하는 문화콘텐츠 공

간이 되었습니다. 주택관리공단과 함께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누룽지 만들기 체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시설 외부에는 나무와 꽃을 심어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김천시니어클럽 청노을식품'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터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자 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 마을과 김천혁신도시 간 활성화에 힘쓰고, 공익적 상생공간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제공과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여 농촌의 경기 활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싶습니다.



▲ 청노을 누룽지 참여어르신



▲ 청노을 누룽지 제조 활동



▲ 청노을식품 참여자 단체 사진

시설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증진

유휴시설로 방치되어 있던 '모산 달코미 희망체험관'을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김천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사업장'으로 활용하여 누룽지 및 건강음료 등 농산물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문화 선도와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일으키고, 농촌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노인일자리 참여자로 '청노을식품' 주변 환경을 함께 가꾸고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개발·보급하여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콘텐츠 공간

새 단장을 한 '김천시니어클럽 청노을'에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 가족 중심, 복지·보육시설 등의 유관기관 단체 참여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설 외부로는 도라지꽃, 포도나무, 호두나무 등 식물을 심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노력을 기울여 지역 커뮤니티 및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HACCP 인증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며 누룽지와 건강음료 외의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몰 입점으로 온라인 판매 유통망 확대를 꾀하고, 대형마트 납품 등으로 매출 수익을 극대화하여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설 주변에 조형물과 포토 존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일 것입니다.

“
 도라지꽃의 꽃말
 영원한 사랑, 당신의 삶도
 영원히 사랑으로
 ”



▲ 청노을 노인생산물 홍보 사진



▲ 다문화가정 아동 누룽지체험활동



▲ 청노을 노인생산물 누룽지 사진

미니인터뷰

mini interview



대표
이동근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한 특별한 의미나 계기가 있나요?

이동근 (대표)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김천시니어클럽 청노을식품'을 알리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전국의 시니어클럽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노인일자리 개발과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모델의 제시는 상호 윈-윈 전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마을의 이러한 발자취를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남기고 싶었습니다. 향후에도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의 성공사례로써 본보기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의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최필수 (담당자)

현재 지역 특산물 및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다양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노을식품'의 상품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대량 납품도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품 개발과 소득 증대는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이루는 데에 탄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김천시니어클럽 청노을'이 지역의 여가 및 커뮤니티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에게 편안한 공간이 되면 시설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소득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떤 마을사업이든 주민의 행복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활용현황

김천시니어클럽 청노을식품 시설

내부

제조시설(A동)

간식용 누룽지 생산
제조시설

제조시설(B동)

도라지배즙, 생화차 등
건강음료 생산시설

체험장

다양한 먹거리 체험활동
및 교육 공간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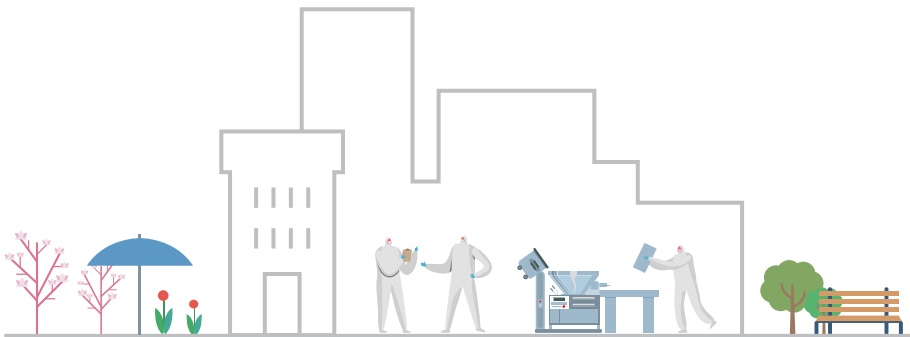
사무업무 공간

로비

노인생산물 전시 및 홍보 공간

저온창고

생산 재료 보관 공간



외부

앞마당

도라지꽃, 포도나무 등
식물생태공원

뒷마당

야외 휴게공간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본선 행사 사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최한 이번 콘테스트는 전국 2,440개 농촌 마을에서 예선을 거쳐 최종 결선에 오른 25개 팀이 선의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2022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사례집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농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TEL. 044)201-1560~1

발행일 2022년 12월

편 집 디자인스토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https://www.raise.go.kr/contest>

※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